수입차 전문 수리 불리카 때 박형수 M, 010-8998-1048 H, 063-244-1048

F. 063-244-104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943-9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The JeonBuk Times

조기문법무사 해솔학행정사 법무사/행정사 조 기 문 (우)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8중 805호(만성등, 오케이터워기) Mobile 010-2053-8741 Tel 063-223-8741

2025년 10월 2일(목) 제 3184호

道 추석 연휴 문화시설 '활짝' 즐길거리 풍성

박물관·미술관·도서관·체육등 도내 문화시설 295곳 전면 개방 전시·공연·체험 귀성객 맞이 전주·익산·김제 등 축제 다채

전북특별자치도가 올 추석 연휴에 도 내 문화시설 295곳을 개방한다.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 관광지, 체 육시설이 고루 포함돼 도민과 귀성객, 관광객이 명절에도 다양한 문화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개방 시설에서는 전시 와 공연이 이어지고, 지역 곳곳에서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명절 행사가 펼쳐져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이번 연휴 동안 문을 여는 시설은 박 물관 28곳, 미술관 15곳, 공공도서관 55 곳, 주요 관광지 28곳, 작은영화관 9곳, 공공체육시설 142곳 등 모두 295개소

도립미술관은 특별전 진격하는 B급 들과 체험형 전시 아이스크림 똥, 기증 소장품 상설전 고귀하고 고귀한Ⅱ를 마련했다. 정읍시립박물관은 왕실 청화 백자와 고려청자 특별전을 동시에 선 보이고,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근대 도 시의 생활사를 재조명하는 기획전을 연다. 남원 김병종미술관은 현대미술 협력전으로 지역의 예술적 감각을 더 한다.

완주 책박물관과 전주시립도서관 꽃 심, 정읍시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55 개 공공도서관도 문을 연다. 일부는 열



道 친환경·고성능 이차전지 기술 육성 '시동'

전북특별자치도는 1일 이차전지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갈 친환경 고성능 이차전지 핵심소재 기술 혁신허브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다. <사진=전북자치도>

람실만 개방된다.

전주 경기전과 남원 광한루원, 김제 벽골제, 고창읍성 등 대표 관광지와 작 은영화관 9곳도 정상 운영된다. 전주 화산체육관, 전주빙상경기장, 익산주경 기장 등 공공체육시설 142곳 역시 가족 단위 체육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 다. 다만 일부 시·군 박물관은 추석 당 일 휴관하니 확인이 필요하다.

또 문화시설 개방과 함께 명절 분위 기를 더하는 행사도 다채롭다.

전주에서는 세시풍속 한마당 '낮달

마실'(10.3.~10.9.)과 전주공예품전시관 '한가위 한마당 들썩', 경기전 조선왕조 실록 포쇄 재현이 이어진다. 전주국제 한지산업대전(10.2.~10.4.)과 전주천년 한지관 체험행사도 마련돼 전주의 전 통문화와 현대 콘텐츠가 어우러진다.

군산예술의전당에서는 가수 남진의 전국투어 콘서트(10.4.)가 열려 명절 분 위기를 끌어올리고, 익산에서는 마한문 화대전(10.3.~10.5.)과 백제왕궁 소원페 스타(10.5.)가 진행된다. 김제 지평선축 제(10.8.~10.12.)는 농경문화를 주제로 한 체험과 공연을 마련하고, 부안에서 는 추억의 가요 콩쿨대회(10.5.)가 열려 세대를 아우르는 화합의 장이 펼쳐진

추석 직후인 11일에는 한국소리문화 의전당에서 훈민정음 창제 579돌을 기 념하는 '2025 도민과 함께하는 한글큰 잔치'가 열린다. 기념식과 시상, 음악회, 성인문해 전시, 한글 소망쓰기 퍼포먼 스가 준비되며,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9.26.~10.26.)와 연계한 서예 퍼포먼스 와 전시도 진행된다. /장정철 기자

전북자치도, 친환경·고성능 이차전지 핵심소재 혁신허브 출범

산학연·기업 12곳 협력 공식화 291억 투입 복합 기술개발 추진 5년간 LFP·실리콘계 핵심 집중

전북특별자치도가 1일 이차전지 산 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갈 '친환경· 고성능 이차전지 핵심소재 기술혁신허 브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번 협의체 발대식은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와 전북특별자치도가 공동 주최 하고, 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전북자치도를 비롯해 과학 기술정보통신부, 전북TP, KIST 전북분 원, 성일하이텍, 한솔케미칼, 전북대, 군 산대 등 참여기관·기업뿐만 아니라 사 업 전담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발대식에서는 전북자치도, 전북테크 노파크, KIST 전북분원, 한국생산기술 연구원, 성일하이텍, 한솔케미칼, 나노 솔루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전북대학 교, 군산대학교, 유닉, 원투자파트너스 등 12개 기관·기업이 업무협약을 체결 하며, 상호 협력체계를 공식화했다.

이들 기관은 전북도 친환경·고성능 이차전지산업 허브 구축을 위한 중장 기 정책 수립, 핵심 소재·부품·장비 분 야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역 기업 지원 과 인프라 조성, 투자 유치 등 산업 생 태계 활성화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어진 기술세미나에서는 ▲친환경·

고순도 유가금속 회수 및 재활용 기술

안호영 의원, 국회내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법 발의

200억원, 지방비 50억원, 민간 41억원) 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친환경·고성능 이차 전지 소재 글로벌 허브'로의 도약에 시 동을 걸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7월

동향 ▲실리콘계 고성능 복합음극 제

조기술 개발 방향 등이 소개되며, 차세

대 이차전지 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전북은 지난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의 지역기술혁신허브 육성 지원사업

에 선정되며 총사업비 291억 원(국비

부터 2030년 6월까지 5년간이다. 사업은 ▲LFP(리튬인산철) 재활용 핵심기술 확보 ▲실리콘계 복합음극 고성능화 ▲기술사업화 및 수출형 산 업모델 구축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특히 전기차 시장 확대와 함께 점유 율이 늘어나는 LFP 폐배터리를 친환경 공정을 통해 고순도 리튬을 회수하고, 기존 흑연 음극 대비 에너지밀도가 높 은 실리콘계 복합음극소재 개발에 집 중한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 성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이차전지 산 업의 세계시장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협의체 출범은 전 북은 물론 대한민국 이차전지 산업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전 북이 글로벌 친환경·고성능 이차전지 소재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염영선 도의원,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 조례 추진

체계적개방·공유근거미련 도민 생활 편의·정책 참여 확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 회 염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 이 제421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 도 공공데이터 이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제정안은 4차 산업혁명 시 대 핵심 자원으로 주목받는 공공데이 터의 체계적 제공과 활용 활성화를 지



염영선 도의원

원할 수 있는 법 적 근거를 마련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조례 가 시행되면 공 공데이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개 방·공유함으로

써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민간의 창의적 활용을 통한 신산 업 발전을 이끈다. 아울러 도민의 생활 편의 증진과 정책 참여 확대까지 가능 해져 지역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한 발 전을 견인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 로 기대된다.

염영선 의원은 이에 대해"디지털 전 환과 인공지능(AI) 산업의 발달로 공공 데이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며,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혁신 서비스 창출과 고부가가치 신산업 성 장을 촉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민 생활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사회적 갈등 해결·합의 제도화" 교섭단체 협의로 대화기구 구성

안호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은 '국회 내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 회적 갈등과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 해 국회가 직접 협의와 합의 형성의 공 식 플랫폼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법

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 제도는 청원, 공청회, 청문 와 협의해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고, 수 있도록 했다.

대화 결과를 보고서로 공표하며 상임위 심사에서 존중하도록 규정했다. 또 필요 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지만 시 정부와 행정기관에 이송해 6개월 내 갈등 조정과 합의 도출에는 한계가 있었 처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구 운 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 영을 위해 공무원과 전문위원을 배치할 /서울=김영묵기자

독자 여러분께 알립니다.

전북타임스는 추석 연휴를 맞아 3일부터 13일까지 휴간에 들어간 후 10월 14 일 자에 신문을 발행합니다.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길 기원합니다.



전북 한우 개량사업 '전국 최고' 성과 달성

우수한우750두배출최다실적 유전체 분석 맞춤형 개량 성과 농가소득증대·탄소중립'속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한 한우 개량 에서 최고 성과를 거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한우 암소 14 만두를 대상으로 유전체 유전능력을 평 가해 우수 개체 3천두를 선발했으며 이 했다. 가운데 전북도에서만 750두가 선정돼

전국 최다 실적을 기록했다.

전북도는 2023년부터 전북특별법에 관으로 지정하고, 유전체 분석과 컨설 소를 선발·관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 팅 지원, 친자확인 검사, 혈통등록, 저능 력 암소 도태 장려금 등 다양한 지원 사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전국 평가 업을 펼쳐왔다. 올해에만 56억 원을 투 입했으며, 특히 축산연구소는 전국 시ㆍ 도 연구소 가운데 가장 많은 20두의 우 수 암소를 확보해 연구 경쟁력도 입증

도는 2023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

분석을 본격 도입했다. 또 농가 맞춤형 근거해 축산연구소를 한우 개량 전담기 컨설팅을 병행해 농가 스스로 우수 암

> 에는 인기가 높은 정액이 우선 배정돼 암소와 정액 확보에서 전국 최고의 성 고능력 송아지 생산이 가능해진다. 이는 개량 속도를 높여 사육 효율성을 키우 고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앞으로 유전체 분석을 활용

난해부터는 연간 3만두 규모의 유전체 한 자발적 개량을 확대해 사육비 절감 과 온실가스 저감 성과까지 동시에 확 보, '탄소중립 축산'에도 속도를 낸다는

민선식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전국 이번에 뽑힌 우수 암소를 보유한 농가 최대 규모의 유전체 분석을 통해 우수 과를 달성했다"며,"앞으로도 과학적 분 석을 통한 한우 개량정책을 추진해 농 가 소득 증대와 탄소중립 실현에 최선 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전북, 추석 맞아 주요 축제·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강화

대규모 인파 대비 안전관리 총력 김제·임실·군산 축제 안전 강화 역·대형마트 승강기 집중 점검

귀성객과 관광객이 대거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 내 주요 축제와 다 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층 강 화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축제가 대부분 야외에서 진행돼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보고 시·군을 비롯해 소방서, 경찰서, 한국전기안전공 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민 간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해 집중 점검 을 추진한다.

계획 수립 및 적정 여부 ▲다중 운집 인 파 관리 대책 ▲시설물·전기·가스 등 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했다. 분야별 안전성 여부 등이다.

특히 추석 기간 중에는 '김제 지평 선축제(10.8.~10.12.)','임실 N치즈축제 (10.8.~10.12.)','군산 시간여행축제 &짬 뽕축제(10.9.~10.12.)'가 동시에 열려 대 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 전북특별자치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라, 전북도는 사전점검을 강화해 사고 없는 안전한 축제 운영에 총력을 다할

특히 도는 명절을 앞두고 철도역사,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승강기 이 용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지난 9월 15일 부터 26일까지 시·군과 승강기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승강기 188대를 점검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승강기 작 동상태 등 이상 유무 ▲자체 점검 실태 및 위험요인 관리 여부 ▲안전관리자 주요 점검사항은 ▲축제장 안전관리 근무 실태 등으로, 지적 사항은 관리주 체에 즉시 시정토록 지도해 추석 전 위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추석 명절 귀성객 모두가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전북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객과 관광객이 대거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 내 주요 축제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층 강화한다 <사진=전북도>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며 "도민과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을 맞아 많은 분들이 전북을 찾는 만큼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장정철 기자

전북도,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특별대책회의 열어

도-시군-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11월~3월 24시간 대응체계 운영 폭설·한파 취약구간 선제 관리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30일 도청 재난 상황실에서 겨울철 자연재난인 대설과 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련기관과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 결빙 구간 재조사를 통해 교통사고 예 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도 관련 부서, 전주기 상지청, 전북경찰청, 육군 제35보병사 개방하며 농축수산물 보호와 한파 취약 단, 한국도로공사, 유관기관 및 대한건 설협회,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 14개 시군이 참석해 역할과 임무를 점 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기상 예보의 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해, 최악 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 상황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 강조 되었다. 정부의 책임 강화 정책 기조에 맞춰 각 기관은 본연의 임무에 대한 책 임을 강화하며 협력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폭설 발생 시 도로 관리 주체별 신속한 제설작업을 통해 교통 불편 해 소에 집중하고, 제설 취약 구간과 상습 방 및 도로 파손 관리 대책도 마련한다. 한파 특보시에는 한파쉼터를 24시간

계층 보호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노홍석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도 와 시군, 유관기관이 협력해 11월 14일 까지 재난 대응 준비를 철저히 마무리



전북도는 지난달 30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겨울철 자연재난인 대설과 한파 피해 최소화 를 위해 관련기관과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전북도>

으로 설정하고 24시간 상황근무와 5단 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장정철 기자

한편, 전북도는 11월 15일부터 2026 계 대응체계(상시대비, 초기대응, 비상 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특별 대책기간 1·2·3단계)를 운영해 도민 불편 최소화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은 1일 진안군 백운면에 조성된 창의예술 미 래공간 '마이누리샘' 개관식에 참석했다. <사진=전북도의회>

전용태 도의원, 진안 '마이누리샘' 개관식 참석

창의예술융합 미래교육 거점 전의원 "미래꿈꾸는터전기대"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 원은 1일 진안군 백운면에 조성된 창의예술 미래공간 '마이누리샘' 개 강조했다. 관식에 참석했다.

주도해 마련한 창의예술교육 특화 공간으로, 자연학습장에서 창의융 합형 미래교육의 거점공간으로 새 롭게 탈바꿈했다. 이번 개관은 농산 촌 학생들이 차별 없이 창의적 역량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진안 학생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 고 밝혔다. 는 공간이 마침내 열렸다"며 "마이

누리샘이 창의성과 예술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터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도의회 교육 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마이누리샘은 앞으로 △창의예술 마이누리샘은 진안교육지원청이 체험활동 △융합형 프로젝트 수업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 해 지역 학생들의 문화예술적 감수 성과 창의력을 키우는 거점 역할을 할 예정이다.

진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 을 기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공동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든 공 간인 만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진 이날 전용태 도의원은 축사에서 안형 미래교육 모델로 자리잡겠다"

/장정철 기자

박희승 "농어촌 출산율 제고 공공산후조리원 필요"

전북 등 12곳 공공산후조리원 전무 박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농 어촌 지역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적극적으로 시설 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북을 비롯한 전국 12개 광역단체에 공공산후조리원이 단 1곳 도 없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보 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전국에 운영 중 인 산후조리원 466개소 중 민간산후조 리원이 445개소(95.5%)로 대다수를 차 지했으며, 공공산후조리원은 단 21개 소(4.5%)에 불과했고, 농어촌 지역엔 거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후조리원은 지역별로 경기가 150 개소(32.2%)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16개소(24.9%)로 단 두 곳에 전체 산 후조리원의 57.1%가 집중되어 있었다. 반면, 세종은 6개소(1.3%), 광주, 울산, 제주 각각 7개소(1.5%), 충북은 8개소



(1.7%)에 불과해 지역별 편차가 컸다. 이중 지방자치

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은 강원, 전남의 경우 5곳의 공공 산후조리원이 있

지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 종, 충북, 전북에는 단 1곳도 없었다.

한편, 산후조리원 이용 가격은 가파 르게 치솟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별 차 이도 크다. 2020년 대비 2024년 가격 상승률이 29.5%에 달했으며, 작년 기준 서울의 평균 이용 가격은 47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이 178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한편, 박 의원은 앞서 공공산후조리 원 설치, 운영 및 취약계층 등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 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울=김영묵기자



전주기상지청, 추석 10월 6일 대보름달 '만끽'

3일~4일특보수준 강한바람높은물결 일어

2025년 민족 대명절 추석 10월 6일 보 름달을 만끽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기상지청(지청장 신언성)은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2일부터 10월 9일까지 의 기상 전망을 1일 발표했다.

전주기상청에 따르면 전북은 추석 당 일 높은 구름(상층운) 사이로 보름달을 로 추석 연휴 초반인 10월 3일에는 남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추석 연휴 3일 비소식을 예고 했다. 연휴 기간 4일~9일에는 고기압 가장자 리에 들어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 많은 날 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 기상청은 추석 기간 중 기온은 연휴 기간 평년보다 2~4℃ 높은 온화한 날씨 를 예상했다.

아울러 3일부터 4일 사이 해상을 중심 으로 높은 물결과 강풍이 불것을 예상하 며 귀성객들은 여객선 운항 여부 확인을 당부했다.

전주기상청은 기압계 및 날씨 전망으 상을 지나는 저기압 영향을 받다가, 4일 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들어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 많은 날씨를 예상했다.

또 최저기온은 당분간 구름 많은 날씨 가 이어지면서 평년보다 4~10℃ 이상 높 은 13~21℃ 분포를 예고했다.

해상 물결은 연휴 초반 3일~4일에는 1.0~3.5m 높은 물결이 예상되나 이후 연 휴 기간 5일~9일에는 1.0~2.0m로 해상 상태가 대체로 양호하겠다.

특히 3일~4일에는 발달한 저기압이 지 나며 풍랑 특보 수준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겠다.

기 8일~10일 기간에는 해안가 저지대를 중심으로 침수, 안전사고 등 피해가 없도

록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기상청은 변동성으로 필리핀 및 대만 동쪽 해상 수온이 높아 대류 활동이 활발 해상 날씨 전망 중 풍랑은 서해남부 하게 나타나면서 열대저기압 발생할 가 능성을 밝혔다.

신언성 전주기상지청장은 "연휴 기간 에도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시시각 각 변화하는 날씨를 감시해 신속하게 정 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다"며 "예보 시점이 멀어 불확실성이 있으니, 향후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와 천문조에 의해 물결이 높아지는 대조 예보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추석 연휴 장사시설 특별 운영

추석당일6일화장시설휴장 총900대주차공간추가확보

전주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전주승화 원을 찾는 추모객들의 편의를 위해 특별 교통 대책과 장사시설 일제 정비 등의 종 합대책을 가동키로 했다.

시는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이어지는 다.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성묘객이 늘어날 것 으로 예상하고 성묘객 맞이에 만전을 기

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먼저 시는 야외주차장(400대)과 유연 로변(500대)를 포함해 총 900대의 주차 공간을 추가 확보해 성묘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주차 질서를 강화키로 했다.

또 연휴 기간 99명의 교통 통제 인원이 집중 배치돼 교통 혼잡 최소화를 도모한

이와 함께 시는 장사시설에 대해서는 예초작업과 시설물 점검 및 정비를 집중

시행한 데 이어, 성묘객 편의를 위해 오 위해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도 운영하 는 4일부터 8일까지 이동식 화장실을 임 차 운영키로 했다.

단, 추석 당일인 오는 6일에는 화장시 홍보에 집중키로 했다. 설이 휴장하며, 성묘 차량 및 운구 차량 의 진입이 제한된다.

교통 통제 구간의 경우 차량 방문객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1개 통행 차선과 1개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방 보행자 전용 차선으로 운영된다.

여기에 시는 성묘객 분산을 유도하기

고 있으며, 효자공원 내에서의 조화 사용 금지 및 친환경 추모 문화 확산을 위한

진교훈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성묘 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며 문객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어린이폐렴구균신규백신'예방접종시작

접종 지원 대상 18세로 상향

전주시는 10월부터 어린이 국 가예방접종(NIP)에 도입된 20 가 폐렴구균 단백결합백신(이하 'PCV20')에 대한 예방접종을 시행 한다고 1일 밝혔다.

폐렴구균은 영유아에서 중이염 과 침습 세균 감염증의 가장 흔한 원인균으로, 면역력이 약한 소아에 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 예방접종 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국가예방접종사업(NIP)으 로는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13가 단백결합백신(이하 'PCV13') 과 15가 단백결합백신(이하 'PCV15')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PCV20 백 신은 기존 PCV15 백신에 포함된 15종의 혈청형에 더해 추가로 5종 (8, 10A, 11A, 12F, 15B)을 포함하 고 있어, 총 20종의 폐렴구균 혈청 형 예방이 가능하다.

표준접종 일정은 건강한 소아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생후 2·4·6 개월에 3회 기초접종을 시행한 후 생후 12~15개월에 1회 추가접종

을 받아야 한다.

이미 PCV13으로 접종을 시작한 소아는 PCV20으로 교차 접종이 가 능하지만, PCV15로 접종을 시작한 경우에는 동일 백신으로 접종을 마치는 것이 권장된다.

또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지원받 을 수 있는 고위험군(면역저하, 만 성질환, 인공와우 이식자 등)의 연 령 상한이 기존 12세에서 18세로 상향돼 더 많은 소아와 청소년에 게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PCV20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접 종자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도우 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접 종 가능 의료기관 현황을 확인하 면 된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이번 폐렴구균 신규백신 접종을 통해 폐렴 등 침습성 질환으로부터 보 다 폭넓게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 할 수 있게 됐다"며 "면역력이 약 한 아이들의 경우 예방접종이 필 수적인 만큼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접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많 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소민 기자

중기부, 우체국 쇼핑몰 피해 소상공인 판로지원

특별 기획전 개최 마케팅 지원 할인쿠폰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 업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달 30일 국 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에 따라 우체국 쇼핑몰 서비스 제공이 중단됨에 따라 피해 소상공인의 판로지원 방안을 마련해 현장에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해당 쇼핑몰에 입점 중인 중기부의 온라인 판로지업 참여 소상공 인 238개사는 물론 피해가 우려되는 소 팅 지원을 위한 할인쿠폰(업체당 최대

상공인 최대 2,400여개사(우정사업본부 추산)이다.

우선, 중기부의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을 통해 우체국 쇼핑몰에 입점 중인 소상 공인 238개사에 대해 다른 온라인쇼핑몰 9개*로 입점 전환을 지원한다. 이를 위 해, 해당 기업에게 문자·이메일을 통해 안내를 완료했다.

특히, 입점 전환 이후 빠르게 판로가 확 보될 수 있도록 10월 1일 민간 온라인쇼 핑몰과 협업해 특별기획전과 함께 마케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핑몰에 입점한 최대 2,400여개 피해 소상 공인 대해서도 대체 판로를 확보할 수 있 도록 지원한다.

중기부 온라인 판로지원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해 빠른 판로 회복을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공영홈쇼핑의 인터넷 쇼핑몰을 활용하여 우체국 쇼핑몰 입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제품의 특별 전용 관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 소상공인의 판로상담 및 또한, 이번 서비스 중단으로 우체국 쇼 피해지원을 위해 전담기관(한국중소벤 처유통원)에 지원 TF를 구성하여 신속한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황영 우정사업본부가 요청하는 소상공인도 호 단장은 "우체국 쇼핑몰이 정상화될 때 까지 소상공인이 판로에 어려움을 겪 지 않도록 우정사업본부 및 민간플랫폼 사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하게 대책을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

/정소민 기자

전북경찰청, '중대재해 수사팀' 신설

산업재해 사망사고 전담 팀

전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1일 형 사기동대에 산업재해 사망사고 사건 을 전담으로 수사하는 팀을 신설한

앞서 경찰청은 2022년 1월 중대재 해처벌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중대 산업·시민재해 근절이 국가적 현안으 로 떠오르게 되면서 전국 모든 시·도 경찰청에 산업·시민재해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경찰청은 기존 안전 사고 수사 인력에서 추가로 정원을 확보하고, '경정' 계급을 팀장으로 수 사경력 등 전문성을 갖춘 인원 5명을

선발했다.

신설된 수사팀은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산업·시민 재해 사고 수사를 전담하면서 관련 수사 노하우를 축적하는 한편, 유관기관인 고용노동부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수 사협의체를 정례 운영하는 등 양 기 관 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국민의 생 명과 신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 찰의 기본 임무이며, 신설된 전문 수 사팀을 중심으로 중대재해를 유발하 는 구조적 원인까지 수사하여 산업현 장 전반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 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자연속 풍요로운 힐링 공간 '전주자연생태관', 추석 연휴 문 '활짝'

추석 당일 제외 연휴 기간 운영

전주자연생태관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방문객이 자연과 함께 풍요 롭게 보낼 수 있도록 추석 당일을 제외한 추석 연휴 기간 정상 운영키로 했다.

광객이 전주의 생태와 전통의 매력을 느 의 소중함을 배울 기회를 제공한다. 낄 수 있도록 유아기후 환경 행사 '지구 지킴이가 될래요'와 '추석 오색빛깔 송편 깔 송편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

만들기'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 게임으로 알아보는 우리 명절과 24절기 연휴 기간 전주자연생태관을 찾아주신 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오는 3일 운영되는 유아기후 환경 행사 '지구지킴이가 될래요'에서는 지구 환경과 생태 보호를 테마로 한 체험부스 수 있다. 와 그림 전시회가 운영된다. 또, 부대행 전주자연생태관은 오는 3일부터 9일까 사인 환경 마술쇼와 솜사탕쇼도 마련돼 지 가족 단위 시민과 한옥마을을 찾은 관 아이들이 즐겁게 지구 환경과 생태 보호

이어 오는 4일 진행되는 '추석 오색빛

△천연 빛깔로 물들인 송편빚기 체험 등 을 통해 아이들이 추석을 맞아 전통의 의 미를 되새기고 추석 분위기를 물씬 느낄 은 추석 연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딧불이와 닥터피쉬 체험공간 △숲속 생 태 놀이터가 상시 운영돼 방문객이 자연 생물과 직접 교감하며 자연 속에서 상상 력과 창의성을 함께 키울 수 있다.

조미영 전주시 환경위생과장은 "추석

어린이와 관광객들이 다채로운 체험 행 사를 통해 자연 생태와 함께하는 풍요로

추석 연휴 동안 운영되는 프로그램 일 이와 함께 전주자연생태관에서는 △반 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자연생태 관 누리집(ecomuseum.jeon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석 오색빛깔 송편만 들기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모집이 모두 완료됐다.

/정소민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 '전통시장 72곳' 안전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달 30일 전북 진안고원시장과 충북 청주북부 시장 등에서 추석 명절 대비 전기안 전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전기안전공사는 지난달 22일부터 전국 72개(9200여 점포)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전기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차단기와 배선 확인 등을 진행해 부

적합・노후 시설물을 현장에서 개선하

고, 시장 상인 대상 안전 수칙 안내와 홍보용품 배부를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명절을 앞두고 전통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화재 예방을 위해 진행됐다.

행사 기간 동안 전기안전공사 임원 진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전기 안전 홍보 활동에 참여했다.

/정소민 기자

지방은행노조, "지방은행 육성! 국가균형발전 핵심전략" 목소리 높아져

지방은행 공적 자산으로 인정 제도 뒷받침 강화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내세운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본격화 되는 가운 데 지방금융을 균형발전의 핵심축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중심 금융체계가 지방은행 자 율적 혁신을 가로막고 있어 중앙정부가 지방은행을 공적 자산으로 인정하고 제 도적 뒷받침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은행노동조합 협의회 의장 정원호 전북은행 노조위원장은 "지방은행은 단 순한 금융기관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지 탱하는 혈관"이라며 "지방금융을 제도적 차원에서 지원하지 않는 한 정부의 균형 발전 구상이 구호에 그칠 우려가 있다" 고 1일 밝혔다.

더불어 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내세운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본격화 되는 가운데 지방금융 을 균형발전의 핵심축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치분권 기반 국가균형 성장 전략과 과 회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최로 지난 제'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밝히며 역특화 금융상품이나 맞춤형 기업지원 3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지방금융 위한 지원 제도화를 촉구했다. 프로그램을 내놓기 어렵고 대형 시중은

특히 현행 제도에서는 지방은행이 지 융과 지방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행과의 경쟁에서도 구조적으로 불리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지자체 금고지정시 지역은행 우대 강화, 공공기관 자금의 일 정 비율 지역은행 예치, 자금 역외 유출 방지, 지역고용 창출과 세수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 등을 핵심과제로 꼽았다.

정 위원장은 "중앙정부가 지방은행을 균형발전 전략의 한 축으로 인정하지 않 는 한 지역은 계속 피폐해지고 수도권 쏠 림 현상은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방은행을 육성하면 지역 고용 창출, 지방세수 확충,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 지역재투자 확대가 가능하다"고 설 명했다.

아울러 현 정부가 추진하는 동남권 투 자은행 구상과 관련해서는 "투자은행이 아닌 투자공사 형태로 설립해 각 지역 지 방은행과 협력구조를 만든다면 지역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소민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추석 연휴 특별경계근무 돌입

2일 18시~10일 9시까지 돌입

전주완산소방서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모두가 안전하고 평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일 18시부터 10일 9시까지 8일간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별경계근무는 화재・구조・ 구급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 응과 귀성객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소방서는 연

휴 기간 동안 전 직원 229명과 의용 소방대를 총동원해 24시간 대응체계 를 유지한다.

주요 내용은 △화재취약대상 예방 순찰 강화 △전 직원 비상연락망 점 검 및 비상응소태세 유지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 및 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 △다중운집시설 소방력 근접배 치 △화재예방 홍보 캠페인 추진 등 이다.

/정소민 기자

중기-국민통합委, 중소기업 동반성장 협력

상생협력 공동 연구 등 업무협약 체결…양극화 해소 협력체계 구축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국민 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와 1일 여의 도 중기중앙회 리더스룸에서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장과 △권혁홍 수석부회장 △배조웅 수 석부회장을 비롯해 국민통합위원회 △ 이석연 위원장 △김희천 국민통합지원 단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소기업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위한 공 동 연구·조사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 을 위한 행사, 토론회, 간담회 등 개최 △

정부 부처・관계기관에 정책 제안 및 지 속적 이행 점검 △중소기업 인식개선 홍 보·캠페인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이어 열린 중소기업 현장 간 담회에서는 △중소제조업 혁신방안 마 련 △대·중기 간 기술격차 해소 △노동 시장 이중구조 해소 Δ'모두의 성장 위원 회(가칭)'설치 △규제배심원제 도입 등 의 건의가 이뤄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우리 사회는 0.1%의 대기업이 전체 부가가치의 66.3% 를 차지하는 대기업 중심의 생태계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 정부에서 협동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Δ 대·중 조합 협의요청권 도입과 온라인플랫폼 법 제정 등 중소기업계의 상생 요구가 국 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앞으로 양 기관이 협력해 중소기업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민통합위원회와 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리더스룸에서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어가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전주동부신협, 신협사회공헌재단에 1천만원 기부

누적 48,860,000원 달성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구현

전주동부신협은 어둡고 그늘진 곳에 햇살이 되고자 하는 신협의 역할을 실 현하기 위해 임직원이 주축이 돼 2014 년부터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

전주동부신협(이사장 인옥순)은 신 협사회공헌재단에 기부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1000만원 전달까 지 전주동부신협은 재단누적기부금 48,860,000원을 달성하게 됐다.

전주동부신협은 2015년부터 꾸준히 재단에 기부금을 전달해 오고있다.

아울러 2014년부터 온세상 나눔캠페 인을 풍우경로당(2014년), 효자4동 주민 센터(2016년), 선너머 사회복지관(2021 년)을 통해 실시해왔으며, 2021년에는 아동·청소년 가정의 주거환경개선을 돕 는 행복한집 프로젝트, 전북 장애인 체 육대회 참여 물품 지원 및 자원봉사활

동을 통해 지역밀착형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천해왔다.

또 아동·청소년의 금융·경제교육을 통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어 부바멘토링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2022년~2024년에는 지역사회 인재육 성을 위한 체계적 제도가 필요함을 인 식하고 신협 여성대학을 열었다.

여성 조합원님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원데이 클래스 등을 운영해 조합 의 인적네트워크를 살리며 이익이 조합 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기부금 전달식에는 신협중앙회 강연수 전북지역본부장과 전주동부신 협 인옥순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임 직원이 참여했다.

인옥순 이사장은 "신협의 사회적 가치 구현을 목표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이번 기부금 전달을 결정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동부신협은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을 적극 추진해 지역경제 활 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중기중앙회 '2026 노란우산 홍보모델' 20인 선정

1천5백여명 지원…광고 출연·콘텐츠 제작 등 경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달 30일 MBC 골든마우스홀(상암동)에 서 '2026 노란우산 홍보모델 선발대회' 최종결선 무대를 개최하고 총 20인을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소 상공인 삶의 이야기를 통해 더욱 친밀 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란우산 가입자 대상으로만 진행됐으며, 1500여 명 지원자가 몰리며 성황리에 막을 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미지 적합성, 모델 적극성, 호감도 등 노 란우산 홍보모델 선정 심사기준에 따라 Δ 1차(서류심사) Δ 2차(카메라 테스트) 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3차(최종결선)에 걸쳐 선정했다.

수 있는 카페, 음식점, 사진관, 서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택시기 사, 유튜버, 가수·배우 지망 자영업자 등 다양한 사연을 가진 참가자들이 끼와 재능을 발산했다.

사업 운영을 하면서 경험한 노란우산 혜택을 노래와 이야기로 풀어내는가 하 면 콘트라베이스, 가야금, 색소폰 등 악 기연주와 댄스, 마술, 마임, 난타 등 갈고 닦은 상기를 선보였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상(1명) △금 상(2명) △은상(3명) △동상(4명) △장 려상(10명) 등 총 20명에게 트로피와 소 정의 상금이 수여된 가운데 이지선씨가

전주에서 9년째 동네 책방을 운영 중 심사를 위해 광고·미디어 등 각 분야 인 이지선씨는 "노란우산이란 늘 든든 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한 힘이 돼주는 친정 아빠와 같은 존재" 라며, "책방 홍보를 위해 도전한 대회에 덜 콘텐츠 제작 △행사·공연 등 다양한 재능을 발산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 서 대상 수상으로까지 이어져 꿈만 같 노란우산 홍보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대회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연예인 홍보대사와 함께 △2026년 노 업장 운영으로 바쁜 사장님들이 잊고 부했다. 란우산 TV광고 촬영 △유튜브 등 디지 및 있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매년 끼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30일 MBC 골든마우스홀에서 '2026 노란우산 홍보모델 선발 대회' 최종결선 무대를 개최하고 총 20인을 선정했다.

새롭게 선정된 노란우산 홍보모델은 은 "노란우산 홍보모델 선발대회는 사 험을 즐겁게 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당

고 있다"며 "노란우산 TV광고 출연부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터 디지털 콘텐츠 제작까지 다양한 경

/정혜민 기자

LX, 몽골 공무원 대상 'K-주소 글로벌 아카데미'성료

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지원 및 국제 협력 강화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사장 어 명소)가 몽골 주소담당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K-주소 글로벌 아카데미'를 진행했다.

한국과 몽골 주소 분야 협력 강화를 미래상을 접했다. 위해 추진된 이번 아카데미는 지난달 9 월 22일부터 30일까지 주소법, 주소 연 멘 지적과장은 "K-주소 글로벌 아카데 계 시스템 이해 등 이론과 실무교육으 미'를 통해 알게된 K-주소의 표준화된 로 꾸며졌다.

이번 아카데미는 지난 8월 몽골 공무 원 1차 'K-주소 글로벌 아카데미'에 이 어 열렸으며 참가자들은 △한국 주소체 계 발전 과정 △도로명주소 도입의 배 경과 성과 △주소데이터 구축・관리 체 심층적으로 학습했다.

또한 현장견학을 통해 한국주소정보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방식과 데이터 관리 체계를 직접 체험하고 실습을 경 험함으로써 실무 대응력을 키웠다.

이어 LX공사가 주관한 '2025 K-Geo Festa'와 '2025 주소 혁신 국제 콘퍼런 스'에도 참석해 AI · 디지털 트윈 등 신 기술과 결합한 주소 · 공간정보 산업의

몽골 토지행정청 푸릅더르지 바얀투 주소체계와 첨단 데이터 관리 방식이 놀랍다"고 말했다.

또 "몽골 주소체계 개편과 행정 혁신 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을 더욱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계 스주소 기반 산업 응용 서비스 등을 번 몽골 공무원 아카데미를 통해 한국 주소체계 운영 경험과 혁신 사례를 배 해 양국 간 협력의 연속성을 강화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몽골 주소담당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K-주소 글로벌 아카데미'

LX공사 심병섭 공간정보본부장은 "이 우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K-주소 글로벌 아카테미'를 통 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지원을 본격화하

/정혜민 기자



농촌공간계획 시범사업, 김제 죽산면 선정

주민 주도형 협력 모델 논의

간계획 시범사업에 김제시 죽산면이 선정되며 주민공동 학습회를 총 3회 개최하고 마무리했다.

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농촌계획을 마련하고자 하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민참여 농촌공간계획 시범사업 은 전국 10개 읍·면에서 진행되고 있 으며, 전북특별자치도는 2개 지구(김 제시 죽산면, 군산시 개정면)가 선정 됐다.

전북의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는 시범사업의 제반 비용 및 추진과 정 홍보 등 총괄·관리를 담당하고 있

죽산면 주민공동학습은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0일까지 총 3회에 걸 쳐 죽산면 아라리요 나눔터 등에서 열렸으며, 주민, 마을리더, 청년, 행정 관계자 등 약 40여 명이 참여해 뜨거 운 관심을 보였다.

첫 번째 학습회에서는 농촌특화지

구, 주거·정주 환경 개선, 경관·환경 보전, 생활서비스 확충, 경제·일자리 농립축산식품부 주민참여 농촌공 창출 등 다양한 농촌 재생 모델과 국 내 성공·실패 사례를 공유했으며, 두 번째 학습회에서는 주민 제안과 주 민협정 제도의 의의와 실제 운영 사 이번 공동학습은 주민 주도로 문 례를 살펴보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실행될 수 있는지 학습했다.

> 특히 죽산면 주민들이 직접 만들고 이행할 수 있는 주민 주도형 협력 모 델을 논의했다.

마지막 세 번째 학습회에서는 죽산 면 중장기 발전계획 구상을 주제로 주민협의체(분과)별 시범사업 아이 디어를 구체화했고, 단순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실행 가능한 소규 모 시범사업 모델을 도출해 나갔다.

죽산면은 간담회를 통해 소규모 시 범사업 및 주민제안 계획수립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한국 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은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주민주도형 농촌 공간계획이 지역 활력 회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정혜민 기자



전북테크노파크, 추석 맞이 사회공헌활동

전북테크노파크는 지난달 30일 삼성 23일 익산 중앙시장을 방문해 지역농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공헌활동은 사회소외계층 세대 를 찾아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등 추석 모두가 풍성한 명절을 보내는 데 보태 명절을 맞이해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고자 한다"며 "아울러 이번 나눔이 물 이웃들과 함께하는 이웃사랑과 나눔경 가 상승과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을 실천했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북테크노 희망한다"고 말했다. 파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휴먼빌을 찾아 노사합동으로 사회공헌 산물을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을 구입 해 삼성휴먼빌에 전달했다.

> 이규택 원장은 "소외되는 이웃 없이 지역 경제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정혜민 기자

전북도, 내년 생활임금 12,410원 결정

3.3% 인상·생활안정 도모

이는 전년도보다 396원(3.3%) 인상된 확정했다. 금액으로, 월급여(209시간 기준)로 환 산하면 약 259만 3,690원에 해당한다.

자가 기본적인 생활뿐 아니라 문화적 고 있다. 활동까지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임금 제도로, 전북특별자치도는 2016년 조례 제정을 통해 2017년부터 시행해

2018년 첫 적용 당시 8,600원에서 시 작해 매년 최저임금·공무원 임금 인상 률, 소비자·생활물가지수 등을 반영해 꾸준히 조정해왔다.

지난 9월 25일 열린 생활임금심의위 원회에서는 노동계·경영계·전문가 등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도 생활임 다양한 분야 위원들이 참여해 토론을 금을 시간당 12,410원으로 결정했다. 거쳤으며, 과반수 찬성으로 인상안을

전북특별자치도의 생활임금은 2026 년 기준 생활임금을 시행 중인 17개 광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 역 시·도 가운데 상위권 수준을 유지하

> 김인태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 원실장은 "물가상승과 경제여건 변화 속에서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을 보장하 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결 정이 지역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더불 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 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 /정소민 기자

5

유정기 전북교육감 대행,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고발

공무집행방해죄·무고죄 명예훼손죄로 학부모 2명 고발 "엄중히 대처할 것"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 행이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를 대리 고 발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속적인 교육활동 침해로 교장·교감 및 담임교 사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전주M초등 학교 학부모 A와 B를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이 공무집행방해, 무고, 명예 훼손 등의 혐의로 1일 전주덕진경찰서 에 대리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A씨와 B씨는 자녀의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와 교장·교감의 학교경영에 대해 2025년 3월부터 국민신문고, 전주덕진 경찰서, 전주M초등학교, 전북교육인권 센터 등에 50여 건의 민원을 제기했고, 수업 중 교실 무단 침입, 언론과 SNS 등에 비방과 명예훼손을 일삼았음은 물론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학교의 정 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훼손했 다"면서 이는 교원을 지속적으로 고통 받게 한 명백한 교권침해 행위라고 설

특히 학부모의 악의적인 교육활동 침 해로 학교 관리자와 담임교사뿐 아니 라 다른 학생들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 다고 판단, 학부모 A와 B를 경찰에 대 리 고발하게 됐다.

두 학부모는 앞서 전주덕진경찰서에 담임교사를 직무유기로 신고했으나 불 입건 종결처리됐고, 전주시청에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등 악의 적인 교사 괴롭히기를 지속해왔다.

학부모 A, B의 교권침해에 대해 지난 6월 10일 전주교육지원청에서 공무·업 무 방해,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 의 반복 제기,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 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등의 사 안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됐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 가해 학 부모 A와 B에 대해 각각 심리치료 15 시간과 피해 교원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의 조치가 내려졌 음에도 학부모들은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결정통지 서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이날 전북특별자 치도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부모 A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를 대리 고발했다.

와 B에 대한 교육감의 대리 고발을 의 결하게 된 것이다.

학부모의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고소 와 민원 제기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 해하는 것이자 결과적으로 다른 학생 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교권침해라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다.

발한 것은 지난해 4월에 이어 이번이 다"고 말했다.

유정기 교육감권한대행은 "교육감권 한대행으로서 학부모를 고발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선생님들의 정 당한 교육할동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 처할 것"이라며 "학교 현장의 선생님 들이 오직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한편 전북교육청이 학부모를 대리 고 교육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

/최성민 기자

전주스포츠클럽 태권도팀, 금5·은4·동7 획득 비전대 총장배 태권도 부장관기, 협회장기, 한국여성연맹

제20회 전주비전대학교 총장배 태권도대회가 지난달 27~28일 비전 대학교체육관에서 열렸다.

대회서 성과 거둬

이번 대회에 출전한 전주스포츠 클럽 태권도팀은 김동현 코치가 지 도한 품새에 16명, 문형효 코치가 지도한 겨루기에 13명 출전해 금5 은4 동7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 다.

겨루기부문 여중부 L미들급 1위 에 문지담을 비롯해 남중부 핀급 임 창현 2위, 플라이급 김윤우 3위, L웰 터급 차성환 3위의 입상 성적을 거 뒀다.

품새 개인전에서는 고등부 1학년 전주상업정보고 남궁보민은 지난 태권원배에 이어 출전대회 2연속 우승을 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보 였다. 전주스포츠클럽은 복식품새 초등부 1위 중등부 1위를 차지했다.

특히 문지담 선수(효문중 3년)는 2025년도에 출전한 전국대회 국방

회장배, 전국소년체전, 한국중고연 맹기, 3.15기념전국태권도대회, 2.28 민주화운동기념 중고태권도대회, 제주평화기대회 중등부 L-미들급 에서 월등한 기량을 발휘해 우승을 하며 국가대표 꿈에 한 걸음씩 다가 가고 있다.

전주스포츠클럽 태권도팀은 품새 와 겨루기에서 올해 전국소년체전 1위 등 많은 대회에 출전해 좋은 성 적을 내는 등 스포츠클럽의 활성화 와 태권도를 수련하는 청소년들의 꿈이 영글어가는 과정을 착실하게 실천하는 전주스포츠클럽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품새부문 개인전(1부리그) △1 위-남궁보민(고1).장우진(중1).유지 오(초5) △2위-장현아(초5) △3위-박은별(고2).김하율(중2).최세리(중 2).윤설아(초5)

▲복식전 △초등부-1위(유지 오.장현아)△중등부-1위(장우진.최 /장정철 기자

전북교육청, 내년 공립 중등교사 326명 선발

13~17일 온라인교직원 채용시스템 통해 원서접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일 도교육 청 누리집을 통해 '2026학년도 중등학 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내년 공립학교 선발인원은 △중등학 교교사 282명(장애 27명 포함) △보건

교사 11명(장애 1명 포함) △영양교사 10명(장애 1명 포함) △사서교사 3명 △ 전문상담교사 9명(장애 1명 포함) △특 다. 수증등교사 11명(장애 1명 포함) 총 326 명(장애 31명 포함)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중등학교교사는 2명 증가했지만, 보건교사 21명, 영양교사 4 명, 사서교사 3명, 전문상담교사 12명, 특수중등교사 8명이 줄어 총 46명 감소

시험에 한해 도교육청에 위탁해 선발한

원서접수는 오는 13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5일간'온라인 교직 원 채용시스템'을 통해서만 진행된다.

제1차 시험은 오는 11월 22일 실시하 며, 합격자는 12월 26일 오전 10시 발표

이어 제2차 실기평가는 2026년 1월 했다. 사립학교는 전년도보다 1개 법인, 15 14일, 수업실연은 1월 20일, 심층면접은

명이 증가한 50개 법인, 222명을 제1차 1월 21일 실시하며, 최종 합격자는 2026 년 2월 5일 발표할 계획이다.

> 김낙훈 교원인사과장은 "올해 임용시 험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

> 이어 "응시자들은 공고문을 반드시 확 인해 접수 절차와 시험 일정, 유의사항 을 숙지하고 시험에 응시해달라"고 말

> >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교수-학습과정안 등 헌법교육 자료 제작

11월 초 제작 완료 학교 보급・수업 활용

주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헌법교 육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교육청은 민주시민·인성교육지원

단을 중심으로 지난 8월부터 헌법교육 에 보급하고, 실제 수업에서 활용될 수 제작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하는 헌법교육 자료는 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들이 민 사용과 학생용으로 구분해 교사용 자료 가는 헌법교육도 진행한다. 는 \triangle 교수-학습과정안 \triangle 수업 PPT \triangle 시나리오 3종, 학생용은 학습지(활동지) 기관인 한국법교육센터와 협력해 오는 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1종으로 제작된다.

개발이 완료된 자료는 도내 모든 학교 급에서 헌법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진해 나갈 계획이다.

10~12월까지 도내 초·중학교 80여 학

성미성 민수시민교육과상은 "헌법교 자료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11월 초 및 있도록 교원 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 육 학습자료는 단순히 헌법을 배우는 것을 넘어, 교실에서 자연스럽게 체득 이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학교로 찾아 할 수 있는 자료로 제작하고 있다"며 "삶과 연결된 실천적 교육, 체험형 활 국내 유일의 법교육 전문 비영리 연구 동 중심의 살아있는 헌법교육이 이루 말했다.

/최성민 기자

행복나눔자원봉사단, 노송동 어르신 식사 대접

아코디언, 색소폰 연주가 곁들여진 '행 복나눔자원봉사단'점심식사 대접이 노송 동 천사마을 희망문화센터 4층에서 펼쳐 고 지난 9년간 어르신 식사 대접, 이웃

미연)은 노송동 지역 어르신 약 60여명

동호회 및 색소폰 동호회원들의 연주가 담으며 덕담을 나눴다. 이어지며 찾은 모든 이들의 기분을 띄웠

함께 양지재가복지센터, 둥지재가복지 란다"고 전했다.

센터 책임자들이 찾아와 일손을 도왔다. 행복 나눔 봉사단은 노송동에 터를 집 어르신 함께 말벗하기 동참 등 지역 어 9월 30일 행복나눔지원봉사단(단장 홍 르신을 섬기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위한 점심식사 대접을 마련했다고 1일 밝 더불어 이 자리에는 도의회 이병도 의 원, 시의회 김윤철 의원, 최용철 의원이 이날 식사 전 문화활동으로 아코디언 깜짝 방문해 지역어르신들의 소리를 귀

행복나눔봉사단 홍미연 단장은 "추석 명절 전 아쉬움을 달래는 시간으로 조촐 지역민 위한 점심식사는 봉사단원들과 하게 준비했지만 힐링의 시간을 되길 바 /김영태 기자



제56회 익산 마한문화대전 시민 맞춤형 문화 행사 마련

익산시가 '한(韓)문화의 발상지'로서의 역사적 정체성을 기념하고, 세계유산 도시 로서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마련한다.

올해로 56회를 맞는 익산마한문화대전은 '한(韓)문화의 발상지 익산, K-컬처의 중심 으로라는 부제로 열리며, 1969년 시작된 마 한민속제전을 계승한 익산의 대표적인 전 통문화 축제다.

행사 첫날인 3일 오전 11시에는 마한시 대 제정일치 문화의 핵심이었던 '마한 소도 제'가 전통 제천의식 형식으로 재현된다.

문화 체험도 풍성하게 마련됐다. 마한인 의 의복과 문신, 농경 민속을 비롯해 베틀 짜기, 불 피우기, 고기 굽기, 부뚜막 시연, 활쏘기 등 고대 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는 20여 종의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부대 행사도 다채롭다. 둘째 날인 4일 오후 4시 에는 역사강사 최태성의 렉처콘서트가 열 리고, 익산 무형유산 공연, 마한합창대회, 마한댄스공연 등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무대가 펼쳐진다.

같은 날 오후 7시 30분에는 영등시민공 원 특설무대에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 유산 등재 10주년 기념음악회'가 개최된다.

오는 25일부터는 백제왕궁박물관에서 세 계유산 등재 10주년 기념 전시회도 열린다. 전시회는 세계유산 등재 과정과 보존 활동 문화관광 성과를 조명하며 익산의 지난 10 년을 되돌아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어르신 의료·돌봄 통합 지원 서비스 본격화

군산시가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 형 시범사업의 하나로 '건강돌봄반찬 지원 사업'과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를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 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 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 의 통합 돌봄 체계 준비를 위해 마련됐다.

먼저 '건강돌봄 반찬 지원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반찬을 제공하고 안부를 확인함으로써 노인 고독 사 예방과 정서적 안정을 돕는 사업이다.

지원 기간은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이며, 대상은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 업 대상자 중 반찬 지원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는 고립된 1인 가 구나 병원 돌봄이 필요한 시민, 어르신을 대상으로, 병원 진료 전 과정에 매니저가 동행해 병원 이용의 불안을 줄이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어 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돌봄의 새 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 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서비 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추석연휴서남권추모공원 정상운영현장대비총력

정읍시가 추석 연휴 기간 성묘객의 안전 과 편의를 위해 서남권 추모공원을 정상 운 영하며 현장 대비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봉안당과 자 연장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한 다. 다만 화장시설은 추석 당일에만 운영하 지 않는다.

추모공원은 연휴를 앞두고 자연장지와 주변 일대의 벌초를 마무리하고, 안내 현수 막을 설치하는 등 방문객 맞이를 위한 새단 장을 완료했다. 특히 성묘객이 집중되는 시 기에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공간을 사전 확보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방문객들이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남영희 노인장애인과장은 "추석 연휴 동 안 많은 성묘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 다"며 "주차와 교통, 환경정비 등 현장 관리 에 만전을 기해 시민들이 불편 없이 성묘를 마치고 조상의 은덕을 기릴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국가유산청 공모 8건 선정

국가유산활용분야 전국 최고 수준 입증 총사업비 34억 확보

익산이 국가유산 활용 분야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익산시는 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 가유산청에서 주관한 2026년도 국가유 산청 공모사업에서 총 9건을 신청해 이 중 8건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시는 전년보다 22억 원 많 은 총 34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 다. 전년 대비 282% 증가한 금액이다.

특히 이번 공모는 단순한 선정 건수 뿐 아니라 사업별 예산 규모 면에서도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세계유산 도시 익산'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 다.

가장 주목을 받는 사업은 다시 돌아 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3년 연속고용률상승

고용노동부장관상수상

인구 감소와 열악한 고용 환경이라는

위기 속에서 정읍시의 맞춤형 일자리 정

책이 빛을 발했다. 시는 미래 성장 동력

산업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 정책으로 3

년 연속 고용률 상승을 이끌었고, 그 성

괴를 인정받아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정읍시는 지난 9월 30일 청주오스코에

서 열린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

자리대상' 시상식에서 '지역일자리 목표

우수기관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온 '미륵사지 미디어아트'다. 이 사업은 3년 연속 공모 제한으로 인해 2025년 한 해 휴식년을 보내고 다시 선정됐다. 내년에도 총사업비 16억 원을 투입하 는 미륵사지를 대표하는 야간 콘텐츠 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백제왕궁(왕궁리 유적)을 무대로 펼 쳐지는 '익산백제 국가유산 야행'은 올 해까지 8년 연속 개최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공모에서도 총사업비 9억 3,500 만 원을 확보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야간 국가유산 활용 사업으로 자리매 김했다. 익산 야행은 2019년, 2023년, 2024년에 걸쳐 국가유산청 '전국 우수 그램이 운영될 전망이다. 야행'에 선정된 바 있다.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도 눈에 띈다. 시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향 교서원 활용사업'과 '지역 국가유산 교 육 활성화사업'이 전통문화 기반 확대 와 세대 간 전승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

정읍시, 전국 일자리대상 첫 '우수기관' 선정

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이 상은 전국 243

개 모든 지자체의 한 해 일자리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최고 권위의 시상

이번 수상은 민선 8기 일자리 정책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정읍

시의 15~64세 생산가능인구 고용률은

72.4%로 전년 대비 0.6%p 상승했으며,

이는 전국 평균 고용률(69.4%)보다 3%p

시는 이번 평가에서 일자리 세부 전략

성과가 가시화된 결과다.

높은 수치다.

이 밖에도 △생생국가유산사업(1억 8,750만 원) △고택·종갓집 활용사업(1 억 3,750만 원) △세계유산 홍보지원사 업(2억 3,800만 원) △세계유산 활용프 로그램(9,000만 원) 등이 증액돼 반영

시는 이번 성과를 단순한 양적 확대 를 넘어 질적 성장을 이뤄낸 결과로 평 가하고 있다. 미디어아트와 야행 같은 세계 유산을 바탕으로 하는 대형 콘텐 츠부터 향교서원·교육사업 등 여러 근 현대유산을 활용한 신규사업까지 시민 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다양한 프로

시는 확보한 예산을 바탕으로 2026년 부터 야간관광, 체험형 프로그램, 유산 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 이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문화유산 도시로서 경쟁력을 한 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성과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주요 성공 전략으로는 △전북연구개

발특구·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연계한 3

대 국책연구기관 중심의 바이오산업 생

태계 조성 △청년·신중년·노년을 아우

르는 생애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

이학수 시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지역산업을 활성화 하고,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신규 산업 발굴

로 일자리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정읍=김정인 기자

추진 등 5가지 세부 전략이 꼽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적극행정 성과 '전국적 인정'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

정읍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성과 평 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 안전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 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제도 활용 △홍보·확산 노력 △우수사례 발 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진행됐

가단의 엄정한 심사 결과 정읍시는 전국 243개 지자체 중 광역 1개소・ 시 2개소·군 2개소·구 2개소 등 단 7곳만 선정된 우수기관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수상은 전 공직자가 시민 중심 적극행정을 꾸 준히 실천해 온 결실"이라며 "앞으 로도 혁신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하고 성과 중심의 적극행정을 흔들 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 /정읍=김정인 기자 했다.

민간전문가 3명을 포함한 종합평

군산시,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전략 논의

실행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출가공 종합단지 미래전략 및 관리운 영 실행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1일 개최했다.

선도도시 군산 실현을 위한 미래비전 제시△군산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 공 종합단지 관리운영 실행계획 제시 등이 논의됐다.

그간 군산은 무엇보다 연간 3만 톤 이상의 고품질 물김이 생산됨에도 가 공공장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전량 유 출돼 산업기반을 상실해왔다.

군산시는 적극적으로 △2019년 새 만금청 부지확보협약 체결 △2022년 군산시가 '군산 새만금 수산식품 수 해수부 스마트단지 공모 선정(국비 등 380억 원 확보) △해수(海水)인·배수 관 설치를 추진했다.

그 결과 △'24.10월 제20회 대한민국 보고회에서는 Δ글로벌 K-씨푸드 지방자치경영대전 행안부장관상 수 상 △지자체의 적극 투자 및 시설건립 등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센터는 해양수산부 공모를 통해 국 비를 지원받아 총사업비 약 380억 원 을 확보해 올 8~9월경 착공을 시작했 으며, 2026년 하반기에는 일부 시설 가동을 통해 본격적으로 운영될 것으 로 보인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이차전지 산업 신성장 거점 '도약'

전구체·양극재 초격차 기술확보 기반 구축

군산시가 국가전략산업의 핵심인 이 차전지 분야 선순환 산업 생태계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사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이 차전지 분야에 대한 초격차 기술 확보 지원을 통해 관련 기업 및 전후방 기업 들의 기술력, 생산성·품질과 매출향상으 로 이어지는 기업의 선순환 성장 촉진을 도모해 군산시를 국내 이차전지 핵심산 업의 거점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구축 사업은 24년 5월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 정돼 총사업비 369억 원을 투입해 오는 28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시설 용지에 지상 2층 규모 센터를 구축 를 가한다. 하고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전구체・양극 재 기술 고도화 지원을 위한 정밀 분석ㆍ 평가 장비 20종을 구축할 계획이다.



공시제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고용 에 대한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와 정량적

함께 핵심 장비 도입을 전격 추진하고 본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대학과 함께 실시간 고도화 분석을 위한 인프라 및 고도분석시험 성능평가 지원 체계 구 축을 통해 이차전지 기업 기술지원 지 시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2공구 연구 도, 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 추진에 박차

군산시와 전북자치도는 시에 소재한 이차전지 기업 및 전후방 산업에 종사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차전지 선 이를 위해 오는 11월부터 센터 착공과 도기술, 소재·광물, 사용후배터리 분야

등 다양한 기술 확보를 위한 이차전지 전후방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도 진행 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이차전지 분야 기술변화 속도에 부응하는 기업 수요 중심의 기술역량 확보 지원을 통해 이 차전지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 출의 중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청 펜싱팀, 전국체전 금빛 석권

익산시청 펜싱팀이 제106회 전국체 금빛 성과를 거뒀다.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부산에서 다. 사전경기로 치러진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자 에페 개인전 결승에서 대전대학교 김정범 선수를 15-12로 꺾고 정상에 오르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같은 날 건히 다졌다. 열린 여자 사브르 개인전에서 국가대 했다.

이어 30일 치러진 남자 에페 단체전 했다.

에서 맏형 권영준과 국가대표 양윤진 육대회에서 개인·단체전을 석권하는 을 비롯해 정병찬, 김종준 선수가 호흡 을 맞춰 결승에서 한국체육대학교를 1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청 펜싱팀은 45-24로 제압하며 금메달을 합작했

특히 권영준 선수는 전국체육대회 2 년 연속 대회 2관왕의 영예를 안았고, 대회 첫날인 25일 권영준 선수가 남 남자 에페팀은 지난해 우승에 이어 2 년 연속 정상의 자리를 지켜내며, 전국 최강팀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굳

정헌율 익산시장은 "앞으로도 최고 표 최지영 선수는 값진 동메달을 획득 의 무대에서 당당히 익산을 대표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명절 연휴 가족 화합 프로그램 '풍성'

전통 체험·역사 교육 등 세대 간 소통 목표

온 가족이 소망을 나누는 추석 명절, 익산시가 준비한 특별한 문화·체험 프 로그램이 시민과 방문객을 기다린다.

익산시는 추석 연휴 동안 가족이 함 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체험 프 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전통 체험과 역사·문화 체험, 야외 활동을 다. 연휴 막바지인 8일에는 익산 교도 아우르는 이번 프로그램은 세대 간 소 소세트장에서 전통놀이와 가족팀 대항 다"고 말했다. 통과 가족 화합을 목표로 기획됐다.

백제문화체험관에서는 3일부터 9일 까지 '백제마을 한가위 잔치'가 열린다. 차를 마시며 전통 다례를 배우는 '백제 의 차향', '백제 놀이터'를 통해 윷놀이,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다.

익산시민역사기록관에서는 '추석연 휴, 우리가족 쓰리고로 즐기자, 기록관 고(Go)'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1GO에 서는 가족이 함께 엽서를 작성해 기록 우체통에 넣으면 새해 선물로 제공된 전이 열린다. 전통놀이로는 가위팔방,

딱지치기, 투호던지기 등 8종이 마련된 다. 가족팀 대항전은 단체줄넘기와 줄 다리기 등 2회차로 진행된다.

추석 당일인 6일 오후 3시에는 함라 한옥체험단지에서 퓨전 마당극 '변사또 애인찾기'가 펼쳐진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연휴 프로 그램은 가족, 친지와 함께 소통하고 추 억을 쌓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온 가족이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 기며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내길 바란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추석 대비 민생안정 대책 점검

정읍시가 지난달 30일 구절초 회의 비 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주요 현안과 민생 대책을 공유하며 소통하 는 자리로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국가유산 보수정비사 부했다. 업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계획 수립 △제18회 정읍 구절초 꽃축 실에서 실과소장과 읍·면·동장이 참 제 등 부서별 주요 사업 현황이 보고 석한 가운데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연 됐다. 이학수 시장은 "부서별 중점사 내 중점사업 추진 상황과 추석맞이 준 업은 시작보다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 며 "부서 간 협력과 철저한 실행력을 바탕으로 반드시 성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

/정읍=김정인 기자

전북타임스

고창사랑상품권 할인판매·구매한도 시장·지역상권활기

고창군이 '군민활력지원금' 지급 개 시 후 불과 일주일 만에 전체 대상자의 74%에 해당하는 73억원 규모가 군민에 게 신속히 지급됐다고 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9월 29일 기준으로 군민활력지원금 신청자는 3만6698명으 로 전체 지급 대상자의 73.2%를 차지했 으며, 지급된 금액은 총 73억원에 달했 다. 여기에 정부 2차 민생소비쿠폰 지급 까지 더하면 총 111억 원 규모의 재정이

군민들에게 지급됐다.

군은 지난 9월 22일부터 읍·면사무소 를 통해 군민활력지원금과 민생소비쿠 폰을 함께 지급하고 있다.

추석 명절을 앞둔 시점에 대규모 지원 금이 단기간에 풀리면서 군민 생활 안정 과 전통시장, 지역상권에 활력이 확산되 고 있다.

군은 잔여 대상자에 대해서도 신속히 지급을 완료하는 한편, 소비쿠폰 사용 실적을 면밀히 관리해 지역경제 전반으 로 파급효과가 확산되도록 지원을 이어 갈 계획이다.

아울러, 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10월 한달 간 고창시랑상품권을 최대 20% 특 별할인 판매한다. 월 구매한도도 100만

원까지 확대해 군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비 절감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유도한다.

또한, 고창 전통시장에서는 수산물 구 입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과 기 간 중 무료셔틀버스도 매일 운행하는 등 명절 장보기에 나선 군민들의 부담을 덜 어주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

심덕섭 고창군수는 "활력지원금, 민생 소비쿠폰, 고창사랑 상품권특별할인까 지 더해 군민 1인당 총 50여만원의 혜택 이 주어지며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 고 있다"며 "많은 혜택과 함께 군민들께 서 따뜻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추석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병행…지역경제 활력

부안군은 지난달 30일부터 10월 1일 까지, 추석 명절을 맞아 물가 급등과 경 기침체로 위축된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 장 보기 행사를 추진했다.

이번 행사에는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 롯한 공무원들과 부안군여성단체협의 회 등 사회단체에서 300여명이 참여해 명절선물과 농축수산물, 제수용품 등 을 구입하고 온누리상품권 및 부안사 랑상품권 이용 홍보도 함께 실시했다.

또한 지난 1일 부안상설시장에서 진 행된 '온누리상품권 농축산물 환급행 사'와의 병행추진으로 장보기행사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권익현 군수는 "이번 장보기 행사가



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군민 들께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통시장 이용하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 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1일부터 5일까지 부안상 설시장에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온누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 상품권 환급행사를 병행 추진하고, 귀

성객 및 군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 해 오는 3일부터 10일 오전 9시까지 부 안마실공영주차장 무료 이용시간을 1 일 12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추석 명절 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쏟고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2025 세계유산축전' 막 올려

22일까지 고인돌·갯벌 문화체험등진행

고창군(군수 심덕섭)과 고창군세계 유산보존협의회(위원장 박현규)는 오 늘 저녁 7시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고 인돌공원 특설무대에서 '2025 세계유 산축전 고인돌, 고창갯벌'개막식을 개 최한다고 밝혔다.

세계유산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죽림 리 매산마을 주민과 갯벌마을 주민을 비롯한 관람객 1000여 명과 세계유산 축전을 주관하는 국가유산청, 심덕섭 고창군수, 조민규 고창군의회 군의장,

윤준병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다.

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고창죽림리 고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주고 있다"며 "이 인돌군을 배경으로 '고창의 보물, 사람 번 개막식을 통해 많은 관람객들이 세 과 자연을 그리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고창농악보존회의 길놀이와 동리문 화사업회의 판소리 공연, 고창초등학 교 늘푸른 합창단의 공연으로 행사의 시작을 알린다.

이어 고인돌과 갯벌의 세계유산 가치 를 담아낸 주제영상과 전문 무용수들 의 고인돌의 제작 과정과 의미를 전달 하는 주제공연이 펼쳐진다.

고창군 관계자는 "고인돌과 고창갯 벌은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세계적

인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이는 고창군 이번 개막식은 2000년 12월 유네스 이 지닌 역사석, 분화석, 생태석 가치가 계유산의 가치를 체감하고, 특별한 감 동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2025 세계유산축전 고인돌, 고 창갯벌'은 10월22일까지 22일간 고창 고인돌공원과 고창갯벌 일원에서 진행 된다. 대표 프로그램으로인 '고인돌 세 움학교'는 학교 수업 형태의 현장 체험 프로그램으로 고인돌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수업 완료시에는 졸업장까지 받을 수 있다.

> >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붉은노을축제 '와인패스' 사전 판매

홈페이지서 22일까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변산해 수욕장에서 3일간 열리는 2025 부 안붉은노을축제 '레드와인 페스 타' 와인패스 사전판매가 진행 중 이다.

와인, 재즈, 그리고 붉은노을을 주제로 펼쳐지는 2025 부안붉은 노을축제 '레드와인 페스타'는 부 안 지역와인은 물론 세계와인, 논 알콜 음료까지 즐길 수 있는 부안 붉은노을축제 대표 프로그램이

패스는 와인패스, 노을패스A, 노을패스B, 총 3가지 종류로 구 성돼 있어 방문객 기호에 따라 선 택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을 통해 구매하면 현장 판매가보다 저렴



한 가격으로 '레드와인 페스타'를 즐길 수 있다.

사전예약은 22일까지 축제 홈페 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축제 현장 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중앙부처 향우 간담회 열어

핵심사업 진행상황 등 공유

고창군이 지난달 30일 세종시에서 중앙부처 향우공무원들과 만나 협력・ 소통 강화를 위한 2025 중앙부처 향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창출신 중앙부처 향우 등 약 30여 명이 참석해 △2025년 고창군 주요 성 과 △핵심시업 진행상황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 최초로 들어서는 삼성전자 고창물류센 터와 고창종합테마파크의 11월 착공 소 식을 전했으며, 반도체 제조용 원료 생 산업체 지텍도 하반기 착공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5년 고창군의 축제·행사 성 공개최 소식도 전했다. 제22회 고창 청 보리밭축제는 폭싹 속았수다 등 K-콘 텐츠 열풍에 힘입어 51만명이 방문(전 년 대비 34% 증가)했으며, 184억원의 경제파급효과를 기록했다.

심덕섭 군수는 "고창은 지금 변화와 성장을 거쳐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약 하고 있다"며 "군민 10명 중 8명이 군정 에 만족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 로도 향우 여러분과 긴밀한 협력 체 계를 구축해 주요 현안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평생학습대상 '최우수상'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생활 속 평 라-학습콘텐츠 SW가 융합된 자원활 생학습을 실천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상하는 '제2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에서 '디지털 학습시대 무형의 학습자산을 만드는 김제형 로 컬-MOOC 구축사업'으로 올해의 평 생학습사업 죄우수상을 받았다.

습이 평생교육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다. 부상하는 가운데, 김제시는 온-오프 라인 융합교육을 통한 지역 평생교육 로 나서 지역 우수 강사의 지식을 디 지털 자산으로 전환하는 혁신적 접근 을 시도해 온 점이 우수하다는 평가 를 받고 있다.

또, 시는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지역 내 인적자원-디지털 학습인프

용형 사업인 로컬-MOOC학습콘텐츠 구축사업으로 5년간 146여 편의 콘텐 츠를 완성해 시민들에게 개방적인 학 습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 사업의 핵심은 지역 강사의 우수 한 전문성을 디지털 학습자산으로 전 이번 수상은 AI와 디지털 기술의 급 환해 학습자 니즈에 대응 가능한 풍 속한 발전으로 개인맞춤형 디지털학 부한 학습선택권을 제공한다는 점이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평생학 습대상 최우수상 수상으로 김제시 기관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선제적으 가 디지털 학습자산을 지키는 로 컬-MOOC의 씨앗을 심어 이제 싹을 틔웠으니, 더 많은 도시와 광역으로 우수사례가 확산돼 디지털학습 생태 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이 10월 '고창갯벌 이달의 새'로 멸

고창갯벌이달의새 '넓적부리도요'

선정…희귀철새보호캠페인전개

종위기 철새인 넓적부리도요(학명 Calidris pygmaea)를 선정하고, 세계적으로 희귀한 철새 보호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 을 이어간다.

넓적부리도요는 몸길이 약 15cm의 작 은 도요새로, 숟가락처럼 넓은 부리를 이용 해 갯벌 속 벌레와 새우, 조개를 먹는다. 독 특한 부리 모양으로 저어새를 연상시키지 만, 몸집은 훨씬 작고 부리 끝이 더 뾰족해 쉽게 구별된다. 넓적부리도요는 전 세계에 약 500마리만 남은 국제적 멸종위기종(CR, IUCN)이며,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급으로 분류돼 철저 한 보호가 필요하다.

최순필 고창군 세계유산과장은 "넓적부 리도요는 지구상에서 가장 희귀한 철새 중 하나로, 고창갯벌이 이들의 생존에 기여하 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멸종 위기 철새 보전과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의 생태적 가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 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 지평선 자전거 투어 성황 도시·농촌상생 '첫걸음'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일, 수도권 자전 거 여행객들이 참여한 '김제 지평선 자전거 투어'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시의 지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친환 경 여행을 통해 지역 경제에 온기를 더하 며,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가능성 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투어 참가자들은 에코레일 열차를 이용해 김제역에 도착했으며, 김제의 주요 명소를 아우르는 총 60km 코스의 라이딩 을 즐겼다. 코스는 우리나라 최대 저수지인 벽골제를 비롯해 구 하시모토농장 사무실 망해사, 김제전통시장 등 김제의 역사와 자 연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이번 투어는 참가자들이 점심은 벽 골제 인근에서 자유롭게 해결하고, 저녁은 김제전통시장에서 제공된 상품권을 이용하 도록 기획됐다. 이는 여행객들의 소비가 지 역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으로 돌아 가도록 한 것으로, '착한 여행'의 좋은 시작 을 보여주었다. 박진희 문화관광과장은 "지 평선의 고장 김제의 아름다운 가을을 자전 거로 만끽할 수 있는 이번 투어가 성공적으 로 마무리됐다"며 "앞으로도 자전거 여행 객들을 위한 인프리를 확충하고 다양한 관 광 상품을 개발해 김제시가 자전거 여행의 성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하서면, 석불산 꽃무릇 축제 성황…대표축제로발전'다짐'

지난 주말 열린 제3회 석불산 꽃무릇 축 제가 제전위원회의 주관 아래 성황리에 치 러졌다.

올해 처음으로 정식 출범한 석불산 꽃무 릇 축제 제전위원회는 지역주민과 관계자 들의 힘을 모아 성공적인 축제를 이끌었다.

이날 행사에는 부안군 정화영 부군수와 박병래 부안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많은 내 빈과 옥천군 군북면 주민자치회 임원진이 방문해 자리를 빛냈다.

축제를 방문한 700여명의 관광객들은 가 을 햇살의 청명한 날씨와 함께 석불산 자락 을 붉게 물들인 꽃무릇을 통해 환상적인 가 을 풍경을 만끽할 수 있었다.

김경중 석불산 꽃무릇 축제 제전위원장 은 "올해 처음으로 출범한 제전위원회가 준 비한 축제가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의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기쁘다"며 "앞 으로도 부안군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시 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공무원 사칭 사기 예방 대시민 홍보

모니터링 강화・유관기관 공조·홍보 활동 확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최근 위조된 명함 및 공문서로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을 사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을 대 상으로 물품구매나 금품대납 등을 요구 한 사기행각이 급증함에 따라, 1일 터미 널 사거리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 로 대대적인 사기 피해 홍보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무 원 사칭 사기는 위조된 명함 및 공문서 를 이용해 관내 업체에 물품구매 대행을 요구하고 물품대금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한 뒤 잠적하는 방식으로, 특히 김 제시 공문서 및 공인이 위조돼 실제 공 무원의 발주 요청처럼 보여지는 만큼 시 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공무원 사칭 사기에 취



약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칭 사기수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모니 터링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공조 및 시 민 대상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공무원 사칭 사

기행각 시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전적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만큼, 해 시는 앞으로도 고도화되는 공무원 사 당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 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는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시 홈페이지 를 통해 진위를 확인한 후 경찰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 자원순환 체험교실 본격 추진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생활쓰레기 감량과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 정착 을 위해 자원순환 시민전문가를 양성 하고, 읍면동 마을을 직접 찾아가 주민 눈높이에 맞는 자원순환 체험교실을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실천할 수 있는 분리배출 요령, 재활용 방법, 쓰레기 줄이기 실천법 등을 주제 로 구성된다.

강시들은 2인 1조로 편성돼 마을 현 장에 직접 방문해 사례 중심,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 의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성주 시장은 "지원순환 시민전문 교육은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바로 가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함 께하는 교육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 란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남원시, 추석 민생안정 종합대책 가동

3~9일 보건·교통·경제 종합 지원 소비쿠폰·공익수당집중지급 물가안정관리·주차장무료개방

남원시는 2025년 추석을 맞아 시민 과 귀성객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3일부터 9일까지 '추석 권 할인율을 10→15% 인상 운영한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책, 도로복구 등 7개반으로 구성된 종 합상황실을 운영해 재난 예방활동 및 사건발생에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발생한 환자들의 응급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응급 의료기관(남원의료원), 보 건지소·보건진료소 등 당직의료기관과 한 연휴 기간동안 유료 공영주차장을 5 즐겨주기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휴일 지킴이 약국이 지정 운영된다.

경제분야에서는 소비감소라는 어려 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 리 상품권 구매 장려와 추석 명절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추진해 전통 시장 활성화에 나서고 남원사랑 상품

또한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대책 종합 7일간의 긴 명절인 만큼 시에서는 귀 상황실을 운영하고 농·수산·축산물 20 성객들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할 것 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건의료, 교통 대 민관 합동 단속반을 가동해 현장 점검 에도 나선다.

남원시는 늘어나는 명절기간으로 여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연휴 중에 경객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상습 정체, 병목구간에 원활한 교통 소통을 곳을 무료 개방·운영하여 귀성객 및 시

시는 또한 명절 손님맞이에 걸맞은 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농민 공익수 청결한 도시 이미지를 위해 추석 전 환 당을 명절 전 집중 지급한다. 또한 온누 경정비를 추진하며, 연휴 동안 늘어나 는 생활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 해 청소민원 처리반과 특별대응반을 가동할 예정이다.

> 경기 침체 속에서도 이웃을 돕는 시 민의 온정은 멈추지 않는다. 사회단체 와 공직자가 앞장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위문과 봉사 활동을 펼치며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추석 뒤에 느 해에 비해 크게 증가할 귀성객과 귀 는 '2025 세계 드론제전, 제33회 흥부 제' 등 풍성한 행사가 준비돼 있으니 고향을 찾은 분들이 남원의 매력을 널 위한 교통 현장단속반도 운영한다. 또 리 알려 주시고, 10월 3대 축제도 함께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배달앱 '먹깨비' 출시

'착한 수수료' 민관협력 운영 정식 개시 기념 할인쿠폰 지급

완주군이 소상공인들의 배달수수료 품권 제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착한 수수료 정책 을 운영하는 공공배달앱 '먹깨비'를 1 토어에서 '먹깨비'를 내려받아 회원 가 일 정식 개시했다.

군은 지난 7월 8일 민관 협력형으로 먹깨비 운영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 이번 개시에 이르렀 트(boss.mukkebi.com)에서 입점 신청 다.

'먹깨비'는 현재 전국 다수 지자체에 문의할 수 있다. 서 운영 중인 공공배달앱으로 △주문 중개수수료 1.5%(부가세 별도) △입점 비·광고비 무료 △지역화폐 연계 등으 과 연계해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과 로 민간 배달앱 대비 소상공인에게 실 질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상 3,000원 할인 쿠폰이 예산 소진 경제 전반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시까지 지급되며, 2만 원 이상 2회 즉시

결제 시 1만 원 쿠폰을 받을 수 있는 특 별 이벤트도 진행된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도 가능하다(지역사랑상

이벤트 참여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 입 후 배달 주문을 하면 된다. 가맹점 신청은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점주가 '먹깨비 사장님' 사이 하거나 고객센터(1644-7817)를 통해

완주군은 앞으로 '먹깨비'를 완주사 랑상품권, 지역 온라인 플랫폼 '완주몰 편리한 서비스를 누리고, 소상공인·자 영업자는 매출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 정식 개시를 기념해 신규 이용 고객 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유희태 완주군수는 "먹깨비는 민간



완주군이 소상공인들의 배달수수료 부담 을 줄이고자 공공배달앱 '먹깨비'를 1일 정식 개시했다. <사진=완주군>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 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상생 형 플랫폼"이라며 "건전한 수수료 문화 를 선도하는 공공배달앱이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 쌍치 파크골프장 개장…기념대회로 활력 더해

18홀 코스·체계적 부대시설 갖춰 1일 개장식 이어 군수배 대회 개최

순창군 쌍치 파크골프장이 1일 개장 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장한 파크골프장은 총사업 비 18억 4,300만 원이 투입돼 조성됐으 며, 18홀 규모의 코스를 비롯해 관리실, 스크린 골프장, 실내 연습장 등 체계적 인 부대시설을 갖췄다. 단순한 운동 공 간을 넘어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의 장으 로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활력을 불 어넣는 소중한 장소가 될 전망이다.

개장식은 1일 쌍치면 금평리(금정 체 의례,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순으로 진 데 진행됐다. 육공원)에 위치한 파크골프장에서 진 행됐으며, 최영일 순창군수, 손종석 군 의회 의장 및 의원 등 주요 내빈과 쌍 협회 회원 등 약 4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 및 내빈 소개, 국민 의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참여한 가운 란다"고 말했다.



순창군 쌍치 파크골프장이 1일 개장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사진=순창군>

행되었으며, 테이프 커팅, 기념식수, 기 념촬영 등으로 마무리됐다.

치면 기관·사회단체 관계자, 파크골프 개장을 기념하는 제1회 순창군수배 파 깊다"면서 "다양한 연령층이 소통하는 크골프대회가 열렸다. 28개팀 350여명

최영일 군수는 "군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한 선진 체육시설 확충 개장식에 이어, 새로운 파크골프장의 이라는 목표 아래 결실을 맺게 되어 뜻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 /순창=박지헌 기자

순창군, 상수도 비상사고 대응 합동 모의훈련

도·14개 시군·전북환경청 등 참여 섬진강 정수 이상 상황 가정 진행

해 지난달 30일 적성정수장에서 '2025 년 상수도 비상사고 위기대응 합동 모 공급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방환경청, 전북도청, 수자원공사 금 판단회의를 열고, 300세대 이상 피해 강유역수도지원센터, 전북 14개 시·군 가 예상될 경우 비상대책본부를 구성・ 상수도 담당자 등이 참여했다.

합동훈련은 지난 2020년 전북지방환 해 최소화를 도모하고, 필요 시 유관기

체결한'지방상수도 통합 위기관리 업 무 협약'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 순창군은 상수도 사고 발생 시 신속 으며, 올해는 집중호우로 섬진강 취수 고 상황 전파 △비상 연계관로를 통한 한 대응과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 시설에 탁도 유발 물질이 유입돼 적성 용수 공급 △정수 처리 공정 복구 및 주 정수장에서 걸러지지 않고 수용가까지 민 지원 △결과 보고 등 사고 수습 전

이에, 상하수도과는 '수돗물 수질민 됐다. 이번 훈련에는 순창군을 비롯해 전북 원 대응 매뉴얼'에 근거해 자체 상황 운영했다. 이를 통해 신속한 대응과 피 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청과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이 관의 기술·인력·행정 지원을 요청하는 절차를 점검했다.

> 이외에도, △비상대책본부 구성 △사 과정의 대응 능력이 종합적으로 검증

최영일 순창군수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정기적인 훈 련을 통해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

/순창=박지헌 기자

완주 '새 랜드마크' 만경강 물고기철길 기공식

보행로 스카이워크 등 조성 관광자원 연계 복합 거점 마련

완주군이 만경강의 옛 철교 자 를 세운다.

1일 완주군은 비비정예술열차

광장에서 '만경강 물고기철길 조성 사업' 기공식을 갖고 지역 대표 관 광거점 조성을 향한 첫 삽을 떴다. 이날 행사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지역 주요 인사와 주민, 관광객 등 400여 명이 참석해 만경강의 새로

을 투입해 2026년까지 추진되며,

운 도약을 함께 축하했다.

총연장 405m의 보행로, 200m 스 카이워크 및 전망쉼터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비비정예술열차, 구만경강 리에 새로운 문화·관광 랜드마크 철교, 삼례책마을 등 인근 관광자 원과 연계해 문화·관광 복합 거점 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유희태 완주군수는 "오늘 기공 식을 계기로 군민과 함께 성공적 인 완공을 이루고 지역경제와 관 광 활성화를 반드시 이끌어내겠 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경강 물고기철길은 전 북 14개 시군을 잇는 문화관광 거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50억 원 점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순창시장 일원서 300여명 참여 공공카트 무료대여 개시 '호응'

순창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전통시장의 이용을 독려하고 지역 상 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석맞이 시장 장보기 행사를 1일 순창시장 일원에 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군청 공무원을 비롯해 유관기관, 사회단체 관계자 등 약 300 다. 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제수용품과 생활용품, 지 역 농특산물 등을 구매하고 전통시장 을 직접 이용했다.

행사와 함께 순창사랑상품권 사용 을 유도하고 물가안정 캠페인, 장바구 니 나눔 행사도 함께 추진해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과 지역경제에 긍정적 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특히, 이날 장보기 행사에서 전통시 장 활성화와 군민 편의를 위해 지난 달 26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공공카트 무료 대여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었

간편하게 공공카드를 대여해 많은 물품을 편하게 구입·운반하며 실제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순창=박지헌 기자

완주군, 법원 판결 근거로 문화원 정상화 추진

부원장 직무대행 체제 가동 하반기 사업 본격화

완주군이 장기간 표류해 온 완주문 화원 정상화를 위해 법원 판결 취지 와 문화원 정관에 근거해 부원장 직 문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군은 지난 2022년부터 완주문화재 단, 완주문화도시센터, 한국예총완주

청사의 무상사용 기간이 2024년 10월 차 강조했다. 5일자로 종료된 이후에도 사용권 문 제를 둘러싼 분쟁이 이어졌다.

기한 건물 인도 소송에서 "문화예술 적 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문화원 이 단체 이전 및 행정재산 사용허가 갱 신 여부는 지자체 재량사항에 해당한 다"며 완주군의 손을 들어줬다.

도 강제집행이 인용된 바 있으며, 현 재 상대 측의 불복으로 관련 법적 절 고산면 건물은 노인문화교육 거점으 차가 진행 중이다.

군은 "확정 절차를 존중하되, 판결 문화발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취지에 따라 공공 자산의 합리적 활

용과 문화서비스 공백 최소화에 주력 하겠다"고 밝혔다.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는, 문화원장 이 형사소추 중인 사유로 정관 제17 조 제4항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상태 임에도 지난 7월 21일과 9월 29일 직 무대행 체제를 가동하고, 하반기 주요 접 이사회를 열어 본인의 지위 복권 안건에 스스로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정관을 위배한 중대한 절 차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지부,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등이 군청 있으며, 완주군은 "문화원의 운영은 인근 문화복합지구로 이전을 마쳤다. 반드시 정관과 관련 법령이 정한 범 그러나 완주문화원은 고산면 기존 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재

군은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부원장 직무대행 체제를 통해 하반기 선양사 법원은 지난 9월 3일, 완주군이 제 업등 주요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법 전과 활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용진읍·삼례읍 삼봉지구 등 인구 증가 지역의 문화 수요에 적극 앞서 7월 7일 명도단행 가처분에서 대응하고, 읍·면별 문화와 역사 발굴· 재조명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로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균형적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가 제19회 도 장애인체육대회에서 42개 메달 성과를 거뒀다. <사진=남원시>

남원시, 전북장애인체전 42개 메달 획득 '쾌거'

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 선발된 2,000여명의 선수들이 참 등에서 큰 성과를 올렸다. 가해 15개 종목에서 열전을 펼쳤으

남원시가 제19회 전북특별자치도 며, 남원시는 족구, 태권도, 볼링, 좌 장애인체육대회에서 금메달 14개, 은 식배구 등 13개 종목에 선수 130명을 메달 11개, 동메달 17개 등 총 42개의 포함한 임직원·보호자 등 총 168명 이 참가했다. 특히 태권도·족구·좌식 이번 대회는 전북도 14개 시·군에 배구·골볼·게이트볼·볼링·육상·론볼

/남원=정하복 기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완주군에 1만 권 도서 기증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1일 완주군을 찾아 지역 독서문화 확산과 지식문화 접근 성 강화를 위해 2억 원 상당의 도서 1만여 권을 기증했다

이번에 기증되는 도서는 아동·청소년 도 서부터 인문, 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됐다.

군은 기증받은 도서를 군민 열람 서비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독서문화 진흥 활동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일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사무처 장은 "이번 도서 기증이 군민들의 지적·문 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 다"라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군민 모두가 쉽게 책 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독서문화가 한층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 서관이 지식과 소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 밝혔다.

이번 기증 도서는 현재 운영 중인 도서 관과 작은도서관에 우선 배치되는 동시에, 2026년 7월 개관을 목표로 건립 중인 고운 삼봉도서관에도 비치될 예정이다.

총 120억 원을 투입해 삼봉지구에 조성되 는 고운삼봉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969㎡ 규모로 자료실, 공동육아나 눔터, 민원센터, 청소년 존, 커뮤니티 공간 등 복합문화 기능을 갖추게 된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일본 관광시장 공략 관광자원·체험 콘텐츠 알려

남원시는 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 일 본 아이치현 도코나메시 Aichi Sky Expo에 서 열린 '투어리즘 EXPO 재팬 2025'에 참 가해 남원의 대표 관광자원과 콘텐츠를 적 극 홍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일본관광진흥협회, 일본정 부관광국 등이 주최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 의 국제 관광박람회로, 전 세계 70여 개국 1,100여 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했으며, 약 1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남원시는 전북도와 함께 마련한 공동 홍 보관에서 광한루원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영화 촬영지, 춘향제 등 대표 축제, 국악·한 옥체험, 남원 미식(추어탕, 흑돼지) 등 K-컬 처와 전통문화가 결합된 관광자원을 중점 적으로 알렸다.

특히 25일과 26일 진행된 B2B 상담회에 서는 일본 현지 여행업계와 총 15개 업체와 의 미팅을 통해 남원 관광상품 개발 가능성 을 논의했다.

27일과 28일 2일간의 일반 소비자 대상 부스 운영에서는 SNS 팔로우 이벤트와 현 장 상담을 통해 많은 방문객이 몰렸으며, 남원의 한옥·국악체험, 드라마 촬영지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남원시는 이번 박람회 참가를 통해 일본 관광시장에서 남원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 이고, 전북도와의 공동 홍보를 통해 관광상 품 송출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추석 제수용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모두 '적합'

순창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가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용 농산물을 대상 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품목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군은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위해 마트 및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명절 제수 용으로 많이 쓰이는 사과, 배, 밤, 도라지 등 총 18품목(채소류 10종, 과일류 10종, 버섯 류 3종, 견과류 1종)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463성분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26품목 중 15품목에서는 잔류 농약이 불검출되었으며, 11품목에 대해서 는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를 넘지 않아 '적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잔류농약이 허용 기준치 이 하로 검출된 농산물은 껍질 벗기기, 씻기, 데치기 등의 조리 과정에서 농약 성분이 모 두 제거 또는 분해되므로 소비자들이 안심 하고 섭취해도 된다고 전했다.

/순창=박지헌 기자

임실군, 추석 명절 기간 민생 안정 종합대책 추진

임실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생활민원 해결 및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3일부 터 9일까지 근무자 180여 명을 배치해 종 합상황실을 운영한다.

군은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재난 재해 대책반, 물가대책상황반, 생활환경개선반, 상하수도대책반, 교통대책반, 의료방역대 책반 7개 분야를 가동한다.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생활 민 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군민 모두가 안전하 고 불편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반 의 준비를 마쳤다.

특히, 지역 주민 비상 응급진료를 위해 보건의료원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고, 당 직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을 지정하 여 의료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연휴 기간에 비상 진료를 실시하는 관내 병·의원 및 약국 현황은 임실군 보건의료원(063-640-3110)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 다.

또한, 생활쓰레기 특별 수거 등 환경정비 와 상하수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여 주 민 불편이 없도록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소득층에도 생계비 및 물품 지 원과 함께 명절 음식 나눔으로 군민 모두가 따뜻하고 풍요로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 도록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실시한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보건의료원 응급실, 추석 연휴 24시간 운영

무주군은 추석 연휴 기간 응급환자 발생 에 대비해 무주군보건의료원 응급실을 24 시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사와 간호사, 방사선사 등 25명의 의료 진이 3교대 근무를 할 예정으로 응급실 밖 에는 환자 분류소를 별도로 운영해 효율성 과 신속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감염병 의심 환자의 경우는 격리 진료를 통해 응 급실 내 감염을 막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

응급환자 이송에 대비해 상급의료기관과 권역외상센터 간 비상연락망 체계를 강화 하는 한편, 다수의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 응을 위해 무주소방서, 무주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무주=최의호 기자



진안군 가위박물관, '뽀로로 in 가위박물관' 팝업전시

진안군은 2025년 가위박물관 특별전으 로 오는 19일까지 '뽀로로 in 가위박물관' 팝업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2003년 첫 TV방영 이후 지 금까지 어린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온 호 기심 많은 꼬마 펭귄 '뽀로로'를 주제로 특 별 기획했다.

뽀로로는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인지도 를 자랑한다. 2023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캐 릭터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3세부터 69세까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서 '가장 선호하는 캐릭터' 1위를 차지했으 며, 특히 10대~30대에서도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전시기간 동안 특별전시실에서는 △'뽀 롱뽀롱 뽀로로' 캐릭터와 함께하는 포토존 △생일 고깔모자 꾸미기 △뽀로로 종이인 형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 된다. 또 '뽀로로와 함께 미션코드를 찾아 라!' 이벤트를 통해 미션 코드를 모두 찾은 관람객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한다. 단, 기념 품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가위박물관은 연휴기간 동안 10월 6일을 제외한 전 기간에 개관해 방문객들을 맞을 계획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2025 임실N치즈축제, 8일 개막

10월 8일~12일 개최 천만송이국화볼거리풍성

임실 방문의 해를 맞아 2025 임실N 치즈축제가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추 석 연휴 5일간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임 실치즈마을·임실읍 일원에서 역대급 규모로 개최된다.

11회째를 맞는 임실N치즈축제는 임 실 방문의 해에 열리는 만큼 기존 4일 에서 올해는 5일간 개최되며, 맛과 멋, 즐거움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맛이 좋고 영양분이 높은 고품 질 저지종 원유를 활용한 프리미엄 숙 성치즈와 성인 다이어트와 뼈 건강에 좋은 무가당 요거트 연계 특별 프로그 램을 구성해 임실치즈의 깊은 풍미를 제대로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주요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되어 △임 실N글로벌치즈 푸드페어 △숙성치즈 를 활용한 맛있는 디저트 퐁뒤 체험 △ 국가대표 임실N치즈 대형 쌀피자 △임 여 개의 프로그램이 관람객들을 맞이



2025 임실N치즈축제가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추석 연휴 5일간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임실치즈마을 임실읍 일원에서 역대급 규모로 개최된다

축제장의 가을 정취는 한층 더 깊어 진다. 매년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천만송 이 국화꽃 경관과 유럽형 장미원이 어 우러져 환상적인 경관을 연출하며 밤 에는 환상적인 LED 야간경관 조명이 실N숙성치즈 굴리기 등 10개 분야 70 빛을 더해 잊지 못할 야경을 선사한다. 또한, 청정 임실에서 자란 암소 한우

와 12개 읍·면 생활개선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엄마표 향토 음식의 향연도 펼 쳐진다.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을 위한 특별 한 행사로는 평소 할인을 잘 하지 않는 임실N치즈 유제품들을 축제 기간 5일 동안 20% 파격 할인해 판매한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서 표창 수상

'우수 평생학습도시' 선정 부총리 표창 수상 쾌거

진안군(군수 전춘성)이 교육부가 주 최한 2025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 에서 '우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며, 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 국 평생학습대상'에서 부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성과는 2001년 전국 최초 평생 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 군민과 함께 평생학습문화 정착을 위해 꾸준히 추 진해 온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재지정평가는 전국 군 단위 46개 지 자체를 대상으로, 추진체계와 사업은 영, 사업성과 등 3개 영역에 걸쳐 서면 및 대면심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진안군은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 램 운영 △부서 간 협업을 통한 보조금 확보 노력 △학습공간 확대 △노후시 설 개선으로 프로그램 확대 운영한 성 과 창출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재지정 통과는 물론 차기 3주 기 재지정 평가까지 면제되는 영예를 안았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이번 우수 학습 도시 선정은 진안군민 모두가 함께 만 든 성과"라며, "앞으로도 평생학습이 군민의 삶을 바꾸고 지역을 살리는 원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 겠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세대별 맞춤학습 제공 △주민·지역 간 학습 격 차 해소 △지역사회 환원 활동 장려 등 군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해 나가며 전국을 선도하는 평생학습 도 시로서 위상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민들,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위해 뭉쳤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범군민 결의대회

무주군이 1일 무주예체문화관 대강 미를 더했다. 당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 정을 촉구하는 범군민 결의대회를 개 최했다.

무주군이 주최하고 무주기본소득연 대가 주관한 이날 결의대회는 기본소 득 도입 필요성에 대한 군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내외에 무주가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최적지임을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 량을 결집한다는 내용과 △농어촌 기

각 마을 이장·부녀회장 등 구심체들과 해 군민 공감대를 넓혀간다는 내용, △ 주민 등 1천여 명이 자리를 함께 해 의

센터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과 허 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해 눈길 동일 무주기본소득연대 대표로부터 '농 을 끌었다. 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배경 및 취지 설명을 듣고 결의 퍼포먼스 등에 동참하며 '기본소득 유치' 의지를 나타

범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

중앙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무주군 의 절박한 현실과 군민의 열망을 직시 참석자들은 신재원 무주군농업기술 하고 무주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라

이 자리에서 황 군수는 "그동안 무주 는 자연환경 보존에 따른 개발 제한 등 다양한 규제를 감수하면서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세월을 숙명처럼 안고 살 또한 △무주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 아왔다"면서 이제는 정부가 농어촌 기 본소득으로 답할 때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장수군, 전북 최초 '가축 응급진료 동물병원 당번제' 운영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

장수군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가축 질병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 기 위해 전북에서 처음으로 '가축 응급 진료 동물병원 당번제'를 운영한다고 1 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 는 난산, 급성고창증 등 주요 가축 질병 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축 산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 해 마련됐다.

군은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추석 당 일을 제외한 6일간 관내 동물병원 4개 소를 대상으로 1일 1개소씩 당번 동물 병원을 지정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연휴 기간 에는 진료비가 평일 대비 150%로 적용 된다. 군은 축산업이 지역경제의 중요 한 기반인 만큼, 명절과 같이 진료 공백 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에 응급진료 체



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됨으로써 군민들에게도 보다 안전 하고 건강한 축산물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훈식 군수는 "추석 연휴 중 가축 질 극 안내할 계획이다. 계를 구축하는 것이 농가 안정에 큰 도 병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축산농가의 피해를 특히 이번 제도를 통해 축산농가가 최소화하겠다"며 "농가에서도 연휴 기 간 가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장수군은 이번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농가의 혼선이 없 도록 알림톡과 이장 회보 등을 통해 적

/장수=최진수 기자

장수군, 노승무 보건의료원장 1일 취임

전문성실무능력두루갖춰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힘쓰겠다"

장수군은 1일 장수군보건의료원 신임 원장으로 외과 전문의 노승무 박사가 취임했다고 밝혔다.

노 신임 원장은 전북 군산 출신으 로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 고 전북대학교 대학원에서 의학박 다. 사 학위를 취득했다.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외과 교수 와 외과대학장, 보건대학장, 암공동 연구소장, 외과과장 등을 역임하며 풍부한 임상 경험을 쌓았다. 학술적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두루 갖췄다 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장과 세종시 복지재단 대표이사 등을 지 내며 의료·복지 분야 전반에서 전 였다. 문성과 리더십을 발휘해 왔다.



장수군은 노 신임 원장의 이 러한 경험을 바 탕으로 장수군 보건의료원의 의료서비스 향

상과 보건의료시스템 실정에 맞는 혁신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

노승무 원장은 "장수군보건의료 원장으로 새롭게 소임을 맡게 되 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장수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수군보건의료원이 지역 사회 건강지킴이로서 더욱 발전하 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덧붙

/장수=최진수 기자

장수군,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완숙토마토' 첫 출하

청년농업인이 여는 장수 농업 미래

장수군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추진해 온 장수읍 두산리에 위치한 지 비가 결실로 이어진 첫 성과라는 점에 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완숙토 마토' 첫 출하 소식을 전했다.

군은 지난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 기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지 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할 청 년농업인 8팀 24명을 공고를 통해 최 종 선발했다.

선발된 청년농업인들은 지난 7월부 터 시설에 입주해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으며 '완숙토마토' 첫 출하의 시작을 알린 것이다. 이번 토마토 첫 출하는 장수군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과 입주 청년농업인 양쪽 모두의 성공적 인 첫 걸음을 의미한다.

시스템을 기반으로 균일한 품질과 안 정적인 생산을 이뤄냈으며 출하 물량 은 수도권을 넘어 대구, 순천 등지로 시장 다변화와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 인 신호로 평가된다.

특히 외부에서 유입된 청년 농업인 들은 청년주택에 입주해 지역 정착 기 반을 마련했으며 이번 출하는 그간 준 서 더욱 뜻깊다.

청년농업인 정성욱 씨는 "올 여름 무더운 날씨에 첫 정식을 일찍 시작 한 탓에 관리가 힘들었지만 최첨단 스 마트시설이라 보다 정밀한 환경관리 가 가능해 품질 좋은 토마토를 수확할 수 있게 됐다"며 "열심히 노력한 만큼 작물이 잘 자라주어 기쁘고 장수군에 서 첫 토마토를 출하하게 되어 영광이 다"고 말했다.

최 군수는 "올 여름 폭염과 잦은 호 우로 힘든 시간을 보냈을 청년농업인 들의 노고에 격려한다"며 "토마토가 시장에 좋은 가격으로 출하되어 그동 또한 이번 출하는 스마트 환경제어 안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농업인들이 지역 농 업의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열정과 판로가 확대되고 있어 장수 농산물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장수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마이산 북부 순환 '진안 빠망버스' 운영

주요 관광지를 순환하는 '진안 빠망버 후 6시까지 매시 정각에 마이산 북부 스'를 시범 운영한다. 이번 버스 운영 주차장에서 출발한다. 은 관광단지 내 각 자원 간 연계성과 접근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 량 정원은 25명이며, 탑승 요금은 1인 련된 새로운 이동 수단이다.

출발해 △산약초타운 △농촌테마공원 로 이용할 수 있다. (야외족욕장) △연인의 길 입구(마이 열차 정류장) △명인명품관 △진안역 사박물관을 거쳐 다시 주차장으로 돌 아오는 순환형이다.

운행 기간은 오는 3일부터 26일까지

진안군이 10월 한 달간 마이산 북부 매주 금·토·일이며, 오전 10시부터 오

단, 정오(12시) 운행은 제외된다. 차 당 100원으로 저렴하게 책정됐다. 미 운행 노선은 마이산 북부 주차장을 취학 아동과 70세 이상 어르신은 무료

> 진안군은 가을 정취를 만끽하기 위 해 마이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즐거운 관광환경을 제공한 다는 방침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추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진행

상승으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전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 불어넣기 위해 군청 전 부서와 지역 를 마쳤다. 또한, 10월 3일부터 9일까 유관기관·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추석 지를 추석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지난 9 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2일간 추진 과 단속반을 운영하여 원산지 표시 이

행사 기간 임실시장 및 오수 상점가 를 단속할 예정이다. 를 방문하여 전통시장 애용하기, 민생 회복 소비쿠폰 소비 촉진 캠페인 등을 폰 지급과 추석 연휴 효과로 소비 진 함께 전개했다.

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임실사랑상품 비쿠폰과 임실사랑상품권으로 구매 권 15%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하여 지역 경제회복에 큰 도움을 주길 국내산 농축산물 촉진을 위해'온누리 바란다"고 말했다. 상품권 환급행사'가 임실시장에서 10

월 1일부터 5일까지 운영된다.

한편, 9월 15~16일 임실소방서와 전 임실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 통시장 화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 간으로 정하고,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 행 여부를 점검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심 민 군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 작이 극대화될 수 있다"며 "이번 추석 군은 명절을 앞두고 군민들의 장바 성수품을 전통시장에서 민생회복 소

/임실=한병열 기자



㈜원진알미늄, 장수군에 추석맞이 라면 100박스 기탁

장수군은 주식회사 원진알미늄(대표 원태연) 이 추석 명절을 맞아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총 400만 원 상당의 라면 100박스를 기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기탁된 라면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 금회를 통해 저소득 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세 대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되어 군 민들이 보다 따뜻하고 넉넉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쓰일 예정이다.

군은 이웃 간 정을 나누는 명절의 의미를 살 리기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배부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이번 나눔 실천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기업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함께 성장 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원태연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 이 풍성한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 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솔라파크에너지 등 진안군에 추석맛이 나눔 실천 이어져

진안군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전하기 위한 민간기업과 단체의 후원이 이어지고 있 다고 밝혔다.

1일 ㈜솔라파크에너지는 135만 원 상당의 선 물꾸러미를 전달하며 명절을 맞은 취약계층에 게 풍성한 한가위를 선물했다.또한 한우협회 진안군지부에서는 2,185천 원 상당의 한우고 기를 지원해 이웃들이 따뜻한 밥상을 나눌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역사회가 함께 어울려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이 진안군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며 "전 해주신 정성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솔라파크에너지와 한우협회 진안군지부는 수년동안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 회와 상생하는 모범적인 기업·단체로 평가받 고 있다.

/진안=전길빈 기자

전국한우협회군산시지부,추석맞이한우 127kg 기탁

490만원상당한우전달

(지부장 배일호)가 지난달 30일, 추석 명절을 맞아 군산시 관내 사 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한우협회 회복지시설·단체 등 어려운 이웃 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에게 한우 127kg(490만 원 상당) 을 기탁했다.

이번 후원된 한우는 군산시 푸 성을 모아주셔서 감사드린다"라 드뱅크를 통해 다양한 사회복지시 며 "이번 기탁이 어려운 이웃에게 설과 단체에 전달되어, 취약계층 의 명절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채 워줄 예정이다.

기탁식에 참석한 배일호 지부장

은 "한우협회 회원들의 마음을 모 아 마련한 한우가 지역의 어려운 (사)전국한우협회 군산시지부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길 바란다" 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을 통

> 강임준 군산시장은 "올해도 명 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위해 정 큰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모두가 따뜻하고 풍성한 추석을 보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 /군산=지송길 기자



전주시 산업단지協, 노동자 새벽 출근길에 아침 식사 배부

김밥·컵밥 등 직접 전달

전주시 산업단지협의회(회장 이 운영)가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건강 한 하루를 응원하기 위해 1일 아침 출근길에 아침 식사를 배부했다.

티 주차장에서 출근하는 노동자들 에게 김밥과 컵밥 등 간편식을 직접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노 동자들은 뜻밖의 아침 한 끼 선물에 환한 웃음을 지으며 감사의 마음을

이번 행사는 전주시가 추진 중인 튼 밥상 사업을 통해 아침 결식 문

'매주 수요일엔 수요튼튼 밥상' 사업 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히, 전주시 산업단지협의회는 지난 8월 1000만 원을 기부해 사업 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든 든한 버팀목이 되었으며, 이번 현장 협의회는 이날 오전 ㈜유니온씨 봉사 참여를 통해 나눔의 의미를 더 욱 확산시켰다.

협의회의 기부금은 전주 산업단 지 노동자들에게 매주 수요일 아침 김밥과 컵밥, 샐러드 등 간편식을 제공하는 데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까지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수요튼



제를 해소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노영열새마을운동고창군지회장, 백미 기탁

백미30포3백만원상당기탁

회장이 지난달 30일 고창군 성내 되새기고자 힘을 보탰다 면주민행복센터를 찾아 백미 10 kg 30포(300만원 상당)를 기탁했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다. 이번에 기탁된 쌀은 추석명절 을 맞아 관내 취약계층 30가구에 따뜻한 위로를 담아 전달될 예정 도움이 절실한 가구에 정성껏 전 이다.

노영열 지회장은 평소에도 다양

한 사회공헌 활동과 봉사에 참여 하고 있으며, 이번 기부를 통해 함 새마을운동고창군지회 노영열 께하는 이웃돌봄의 진정한 의미를

> 이남례 성내면장은 "지역사회에 노영열 지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기탁받은 쌀은 달하겠다"고 말했다.

> > /고창=백종규 기자



장수중동마을 김병길이장, 사과즙기탁

장수군은 중동마을 김병길 이장 이 추석 명절을 맞아 저소득 가정 에 기탁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이장은 올 한 해 두 번째로 사 했다. 괴즙을 기탁한 것으로, 직접 수확 이어가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담았다.

그는 "풍성한 명절을 맞아 이웃 들과 작은 기쁨을 나누고 싶었다" 을 지원해 달라며 300만 원 상당 며 "직접 수확한 사과로 만든 사과 의 사과즙을 장수읍 행정복지센터 즙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

기탁된 사과즙은 관내 사회복지 한 사과를 정성껏 가공해 마련한 시설을 통해 독거 어르신과 장애 신선한 사과즙에 이웃과 나눔을 인 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

/장수=최진수 기자



부안수협, 근농인재육성장학금 200만원 기탁

부안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송광복)은 지 난달 30일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을 방문 해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사랑의 헌혈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기탁 등 꾸준한 사회공헌활동과 나눔 실천을 통해 부 안 지역민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 조합으로 자 리매김하고 있는 부안수협은 지역 어업인들 의 삶의 질 향상과 수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 한 지원을 펼쳐오고 있으며, 이번 장학금 기탁 을 통해 지역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에도 힘을 보태게 됐다.

기탁식에 참여한 송광복 조합장은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을 돕는 것 또한 조 합의 중요한 사회적 역할"이라며 "이번 기탁 이 학생들의 학업과 꿈을 키우는 데 작은 보 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익현 이사장은 "부안수협의 장학금 기탁 은 지역 청년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학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완주경찰서, 추석 명절 맟이 북한이탈주민에 위문품 전달

완주경찰서(서장 박종호)는 추석 명절을 맞 아 지난달 29일, 군의회 김재천 부의장, 이순 덕 의원 및 안보자문협의회(회장 김용현), ㈜ 정석케미칼(대표 김용현), 삼례·봉동 로타리 클럽(삼례회장 김태형, 봉동회장 장정구), 봉 동로타리클럽(회장 장정구)등 30여명이 참가 한 가운데 탈북민을 위한 따뜻한 사랑 나눔 행사를 가졌다.

안보자문협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어려운 환 경 속에서도 사회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북한 이탈주민을 위로하며 따뜻한 사랑의 정을 나 누고자 위문품을 전달해오고 있다.

이날 참석한 북한이탈주민 김 모(여)씨는 "명절이 되면 더욱더 고향 생각이 나는데 이 렇게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어 참 고맙다. 앞 으로 더욱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감사를 전했

/완주=김명곤 기자



〈一事一言〉



주요국들 정부 부채에 떨고 있는 국제 금융시장(1)

홍종학

전 중소벤처부 장관

프랑스의 프랑수아 바이루 총 리는 내년도 긴축 재정안 추진 과 정에서 야당과의 갈등이 격화된 끝에 9월 8일 의회 신임투표에서 패배, 내각 총사퇴를 결정했다. 그 배경에는 GDP 대비 114%에 달하는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 부 채와 유로존 내 최악의 재정 적자 (2024년 기준 적자율 5.8%)가 자 리하고 있다. 정부는 지출 동결・ 공휴일 축소 등 강도 높은 긴축책 을 내놨으나, 대규모 시위와 정치 권 반발로 결국 예산안 통과가 좌 절됐다.

프랑스의 재정 적자는 이미 EU 가 정한 적자율 한계(GDP 대비 3%)를 크게 상회해, 유럽연합 집 행위가 무리한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특별 절차를 개시했고, 신 용평가사 피치와 S&P·무디스가 최근 연달아 국가신용등급을 강 등했다.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3.5%까지 뛰었다.

재정 위기가 심화되면서 세대 갈등, 대규모 시위, 정부 불신임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극좌·극 우 정당 모두 긴축 반대로 결집하 고, 마크롱 대통령은 2년 만에 5 번째 총리 임명이라는 기록적인 정치 불안정에 직면한 상황이다.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이다. 2 년 전 영국의 리즈 트러스 총리는 2022년 9월 취임 이후 대규모 감 세와 에너지 보조금 확대를 골자 로 한 '미니 예산안'을 발표했다. 약 450억 파운드 규모의 감세에 대해 재정적 충당 계획이 미흡하 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이로 인해

영국의 재정 적자 확대와 국가 신 용도에 대한 우려가 금융시장에 급격히 번졌다.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킨 감 세안 발표 직후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하고, 영국 국채금리가 급등 했다. 영란은행이 국채를 긴급 매 입하며 시장을 안정시키려 했으 나 여파는 수습되지 않았고, 정치 권 내에서도 강한 반발과 연쇄 사 임이 이어졌다. 트러스 총리는 결 국 여당 지도부와 의원들로부터 신임을 잃고, 취임 44일 만에 전 격 사임했다.

영국은 여전히 막대한 재정 적 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장기적으 로 재정 건전성 회복 전망은 여 전히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자금 조달을 위해 국채 금 리를 주요국 중 최고 수준으로 유 지하고 있어 최근 10년 만기 국 채금리는 4.5% 이상을 유지하고

최근 전 세계의 시선을 빼앗고 있는 트럼프 정부의 변덕스러운 관세 정책보다 더 중요한 세계 경 제의 이슈는 정부 부채이다. 주요 국가들의 총리를 갈아 치울만큼 폭발력이 강한 경제 문제이다. 주 요국들은 이미 높은 정부 부채 비 율과 높은 재정 적자 비율이라는 치명적인 조합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미국 또한 예외가 아니다. 연초 마다 정부 부채 상한선을 놓고 여 야가 오랫동안 대치하며 정치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일이 반 복되고 있다. 미국이더라도 막대

한 재정 적자는 지속가능하지 않 다고 경제학자들이 경고하고 있 다. 이렇듯 주요 국가들의 재정 적자와 정부 부채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음이 확인되고 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2023 년 기준 GDP 대비 일반 정부 부 채 비율이 단연 심각한 나라는 일본으로, 무려 200%를 넘어섰 다. 영국 역시 100% 근방에 있으 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 시 위기를 겪었던 그리스, 이탈리 아, 스페인 등 남부 유럽 국가들 은 10여 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높은 부채 수준을 유지 하고 있다. OECD 평균 정부 부채 비율도 이미 100%를 넘어선 지 오래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정부 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들이 공통적으 로 높은 재정 적자 비율까지 기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OECD 재정 적자 자료를 살펴보면, 미국, 이 탈리아, 영국, 프랑스 등이 GDP 대비 5%가 넘는 적자를 기록하 는 국가들이다. 앞서 정부 부채가 높다고 언급된 나라들이 재정 적 자 또한 높으니, 정부 부채가 계 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인 것이다. 일본은 이미 부채가 너무 높아 더 이상 늘리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

막대한 정부 부채와 지속적인 재정 적자는 정부의 경제 정책 재 량권을 심각하게 제약한다. 우선,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면서 국방, 사회보장 등 필수 재정을 늘리기가 어려워

진다. 일부 국가에서는 재정 지출 대비 이자 비용이 세금으로 걷은 돈의 8% 이상에 달하기도 한다. 경제가 어려울 때 재정 지출을 늘 려 경기를 부양해야 하지만, 정부 는 재정정책을 마음대로 쓸 수 없 으니 한 팔이 묶인 운동선수와 같 은 처지가 된다.

여기에 더해 금융정책이라는 다른 한 팔마저 묶여 정부는 이 자율을 마음대로 낮추지 못한다. 정부가 국제 금융시장에서 채권 을 팔기 위해서는 높은 이자율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미국 연방준 비제도(Fed)가 금리를 낮추지 못 하는 이유 역시 인플레이션 우려 뿐만 아니라, 막대한 미국 채권 을 시줄 투자자가 없을 경우 금융 시장이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미국 채권을 서서히 팔고 있는 상황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키운다.

미국뿐 아니라 프랑스, 영국, 이 탈리아 모두 같은 상황에 놓여 있 으며, 영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재 정정책과 금융정책, 양팔이 모두 묶인 선진국 경제 정책 당국은 시 민들의 불만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계속〉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보름달처럼 마음이 꽉 찬 넉넉한 한가위 되길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가 본격 시작되었다. 연휴 첫날 새벽부터 고속도로는 차량 행렬로 붐비고, 기차역 과 버스 터미널, 공항에는 선물 보따리 를 든 귀성객들이 북적거린다. 꽉 막힌 도로 사정이나 치솟은 물가 걱정이 여전 하지만 오랜만에 고향을 찾고 조상 묘를 찾아 감사의 절을 올리며 가족 친지 등 과 함께하는 기대감이 그 모든 근심을 덮는다. 무엇보다 흩어져 살아온 가족과 친지가 한자리에 모여 웃음과 정을 나누 는 시간이야말로 추석이 안겨준 가장 큰 선물일 것이다.

추석은 본래 한 해의 수확에 감사드리 는 농경사회의 명절이었다. 그러나 이제 농촌은 마을과 마을이 소멸 위기에 직면 해 있고 도시가 중심이 된 사회로 변화 했다.

그럼에도 농경사회가 남겼던 전통적 인 추석의 의미는 사라지지 않았다. 도 시에서 메마른 일상을 살던 사람들이 고 향의 따뜻한 품에 안겨 서로의 삶을 위 로하고, 다시 삶의 전선으로 나아갈 용 기를 얻는 시간이 바로 추석 명절이다. 부모 세대에겐 자녀에게 혈연으로 얽힌 뿌리를 확인시켜 주는 소중한 교육의 기 회이고, 모든 세대에게는 재충전의 시간 이 되기도 한다.

이번 연휴가 더욱 값진 이유는 단순히 긴 휴식이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다. 최 근 우리 사회는 정치적 갈등과 극우세력 준동, 경제적 불안, 세대와 지역 간 갈등 으로 마음이 자주 갈라져 왔다. 12.3 내 란사태는 아직도 종식되지 않아 불안감 을 더한다. 이런 때일수록 한 지붕 아래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삶의 무게 를 나누며, 함께할 길을 모색하는 시간

이 필요하다.

햇곡식으로 차려진 추석의 따뜻한 밥 상머리 대화 속에서 우리는 갈등보다는 이해를, 불신보다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특히 도농 간의 정서적 유대감이 더 엷어진 현실에서, 추석은 도시와 농 촌이 서로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보듬는 시간이기도 하다.

농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도시는 경쟁과 불확실성 속에서 지친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명 절만큼은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며 마음 을 맞대는 자리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 의 끈을 이어주는 힘이다.

우리가 추석마다 되새겨야 할 것은 바 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가치'다. 요즘 처럼 변화가 빠르고 불확실성이 큰 시대 에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 께해야 삶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다. 오 랜만에 고향을 찾은 귀성객은 늙은 부모 님의 손을 잡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이웃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는 모습 속에 서 공동체의 회복력이 다시 살아난다.

모처럼 찾아온 긴 추석 연휴 동안 일 상의 각박함에서 잠시 벗어나 가족과 이 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의미를 되새겨 보 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귀 기울여 듣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작은 배려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는 훨씬 더 따뜻해질 수 있다.

이번 추석이 단순히 고향을 오가는 의 례적 시간이 아니라, 공동체의 소중함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둥근 한가위 달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로 모 아, 갈라진 틈을 메우고 새로운 희망을 밝히는 연휴가 되기를 마음을 모아 기대 해 본다.

▲ 오늘의시

그대 안에는 아무래도 옛날 우리 어머니가 장독대에 떠놓았던 정한수 속의 그 맑은 신이 살고 있나 보다. 지난 여름 모진 홍수와 지난 봄의 온갖 가시덤불 속에서도 솔 향내 푸르게 배인 송편으로 떠올랐구나.

사발마다 가득히 채운 향기

국문학과를 졸업했다. 1969년 '월간문학' 신인상

추석달을 보며 / 문정희

손바닥이 닳도록 빌고 또 빌던 말씀 참으로 옥양목같이 희고 맑은 우리들의 살결로 살아났구나. 모든 산맥이 조용히 힘줄을 세우는 오늘은 한가윗날. 헤어져 그리운 얼굴들 곁으로 가을처럼 곱게 다가서고 싶다.

가혹한 짐승의 소리로

시인 약력: 1947년 전남 보성 출생. 동국대 국어 에 당선되어 문단에 등단했다. 현대문학상을 수 을 출간했다. 국립한국문학관 관장과 제40대 한 상했다. 시집으로 '문정희 시집', '새떼', '찔레' 등 국시인협회 회장 등을 지냈다.

녹슨 양철처럼 구겨 버린 북쪽의 달, 남쪽의 달 이제는 제발 크고 둥근 하나로 띄워 놓고 나의 추석달은 백동전같이 눈부신 이마를 번쩍이며 밤 깊도록 그리운 얘기를 나누고 싶다.



정혜사석조보살입상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불교조각, 석조, 보살상 -지정일 - 2002년 11월 15일 -시대 - 고려시대 -소재지- 정읍시 죽림2길 28 (연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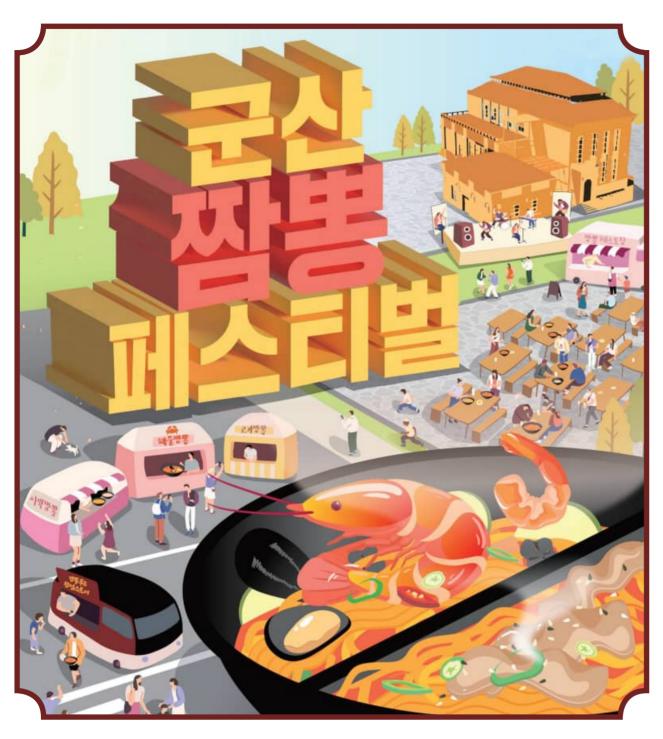


2011년 10월01일 회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일간]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편집국장 장정철 발행. 편집인 송민순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전주지사 010-9845-4113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중앙지사 010-9678-4271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송천지시- 010-5242-3694 ·구독료: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경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0월, 얼큰한짬뽕도시군산으로 떠나는 미식여행



2025 군산 짬뽕페스티벌 10월 9일~12일 개최

군산시가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군산 백년광장 일원에서 '2025 군산 짬뽕페스티벌' 을 개최한다.

다. 오늘날 우리가 즐기는 짬뽕은 1960년대 화 교들에 의해 돼지고기 육수로 국물을 낸 '초마 면'에 항구도시 군산 특유의 신선한 해산물과 고춧가루가 더해져 탄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는 이러한 음식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자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년 '짬뽕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으며, 단순 한 지역 대표 음식 소개가 아닌, 음식·공연·체 험이 어우러진 미식관광 콘텐츠로 발전시켜 지 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자원화에 기여하고 있

한 테마형 먹거리존을 통해 짬뽕의 다채로운 짬뽕과 짜장면을 0.5인분 단위로 판매해 방문 객들이 부담 없이 여러 메뉴를 맛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리미엄 프로그램 '짬뽕레스토랑'을 운영한다. 있는 종합 미식관광 축제로서 미식관광도시 군 짬뽕 한 그릇과 함께 감성적인 재즈 공연, 레크 산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 리에이션형 즐길거리가 더해져 축제의 밤을 더 다"라고 강조했다. 욱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

낮에는 지역예술인들의 참여하는 마술쇼와 서커스 공연이 열려 아이들에게는 즐거움을, 어른들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축제의 흥

축제기간 내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 램도 다채롭게 마련된다.

▲철가방 속 그릇의 물을 흘리지 않고 옮기 군산은 '우리나라 짬뽕의 도시'로 알려져 있 는 게임형 프로그램 '배달! 짬뽕의 명수' ▲대 형 짬뽕그릇에 소원 볼풀공을 던져 넣는 '보글 보글 짬뽕탕' ▲미션 수행을 통해 리워드를 제 공받는 'K-관광섬을 이겨라'까지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덕에 축제의 재미는 배가

> 축제장 인근에는 짬뽕특화거리가 있어 관광 객들이 축제와 함께 미식관광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짬뽕특화거리는 영화 촬영지로 유명한 '빈해 원'을 비롯해 '홍영장', '군산점보짬뽕', '중화반 시는 올해는 한층 더 강화된 짬뽕 콘텐츠로 점', '중화반점1968', '민규짬뽕', '중화짬뽕', '오 관광객 만족도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 징어짬뽕', '개복동중식당' 등 1960년대부터 이 다. 먼저 고기짬뽕, 해물짬뽕, 이색짬뽕 등 다양 어져 온 중식당에서부터 MZ세대 취향에 맞는 현대식 짬뽕집까지 입점해 있어, 축제와 함께 매력을 선보이며, 모든 중식 판매 부스에서는 군산의 미식을 만끽할 수 있는 최적의 코스가

군산시 관계자는 "올해 짬뽕축제는 먹거리존 과 체험 프로그램, 공연까지 한층 다채롭게 준 또한 행사 내 매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프 비했다."라며 "관광객들이 오감을 통해 즐길 수

/군산=지송길 기자









